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1/2

씨/역/사/의/탁/여/△/연/업/의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1/2

1996년 1,2월 합본호(통권 37호)

첫발행 1992. 5. 25.

편집국: 지역사회복지사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 GYID(천리안)

편집인: 남미영

위원: 주혜민, 변미영, 강애란, 박정애, 황미혜

발행일: 1996년 2월 1일

지/역/사/회/탁/아/△/연/접/회

짜·임·새

이웃을 이공물우보

클리어 아이도우

일이며 생각이며 / 3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남미영

수련회 · 총회 보고 / 5

'96년도 지탁연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편집부

새 얼굴 / 8

1996년, 지탁연을 힘차게 이끌어 나갈 새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보육시책 / 11

'96년도 보육사업 사업방향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식단 / 23

봄철 어린이집 식단

오경민

영국유학기 / 25

낯설고 물설은 타향에서(3)

정희연

저상강연 / 35

우리의 장단 · 우리의 노래

임수정

일본보육연수기 / 39

일본 보육시설들을 돌아보고 나서(2)

위양자



<표지사진>

새장 속의 새에게 모이를 주는 아이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만 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우리네 아이들

96.1/2월호

<통권 37호>

새날을 여는 사람들 / 47

강애란

송학마을, 박재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작은기획 / 51

김태일

쉽게 배우는 사진 · 비디오 교실

특약소별곡 / 53

채송화어린이집 이야기

육아일기 / 55

박정애

육아일기를 시작하며

통신이야기 / 57

서정은

BABY이야기

앙게이는 자비 / 59

J.M.바스콘셀로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보육계풍망 / 61

소식과 소식 / 65

편집부에서 / 67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남미영 / 본회 회장

199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아침 동녘에 불쑥 솟은 태양은 새로움의 상징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서곤 합니다.

그것은 년초 함께 모여 우리의 앞길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조직건설을 위해 우리의 행보를 확인했던 지탁연 식구들에게는 더욱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난해, 10년 지탁연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과제를 찾아 노력했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앞날을 내다보는 선각자로서의 개개인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전 보육활동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작지만 소신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개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을 오직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탁연 조직을 위해, 개인을 헌신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신과 헌신이 지금에 와서 새로운 교사조직체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이게 될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엇인지 투명하게 비추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소신, 열의를 가지고 개개인의 활동은 물론 조직 전체가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의 내용과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동안은 지탁연이 교사조직체로 전환하는 것을 위한 논의의 기간이었다면 올 한해는 실천의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조직이 정비된 곳은 실천의 내용들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조직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조직정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체가 한마음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입니다.

먼저는 지탁연 교사들 개개인이 새로이 건설될 교사조직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인식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똑같은 현장에서 하루종일 아이들과 생활하며 지내고 있는 동료들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교사들의 권익만을 주장하여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가 적자나서 폐쇄지경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를 특권을 가지고 살려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탁연이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류장 수만큼 탁아소'라고 외쳤던 시절, 달동네에 공단주변에 맨몸으로 들어가 보육시설을 만들고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아이들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화하여 지금은 어린이집의 수도 많이 늘어나 양적인 발전의 단계를 넘어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보육사업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일조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선언을 통해 보육교사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보육교사들도 전문인으로 인정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고, 또한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국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올바른 보육정책과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 하나가 앞선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임에는 확실하지만 모두가 호흡을 맞추고 열의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발을 맞출 때에만이 넘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면 좋겠지만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보기에 좋은 뿐 아니라 조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갈대같은 보이지 않는 강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명의 교사가 주변의 보육교사 1명을 만나서 내가 가진 소신, 내가 가진 열의를 함께 나누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보육정책과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기 위해 이야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를 지낸다면 내년 겨울 수련회는 분명 가슴벅찬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교사들 자신의 발전을 위해

1996년 올 한해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소련의 . 종의 보고

'96년도 지탁연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편집부 위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

1996년을 시작하는 그 첫 합성은 1월 3일, 남들 다 신정연휴의 단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바둥칠 시간에 시작되었다.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2박3일간 마련된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에서는 방학도 없는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휴가시간을 쪼개 하나 둘 모여들고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총회를 겸해 이루어졌는데, 지탁연이 시설연합에서 교사연합으로 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와 결의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둘째날인 4일 총회를 통해 그간 영유아보육법의 제·개정사업과 지원요구사업, 민간보육시설연대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던 최현숙 회장이 임기마감으로 퇴임하고 신임회장으로 새터어린이집의 남미영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부회장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서울경인지역과 지방에서 각기 후보를 추천하여, 임남희(안산-서경지역), 위양자(군산) 두분이 선출되었으며 감사로는 작년에 감사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숙희씨와 박찬주(부산)씨가 되었다.



3일간의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은 교사운동에 대해 이수호(전교조 서울지부장, 현 서울시교육위원)선생님의 강연과 '1996년 보육교사 조직화사업의 전망과 과제'가 남미영 부회장의 발제로 있었다.

둘째날은 제11회 정기총회와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좌(영어/국악/자연/그림책)가 분반으로 진행되었고 정보소개시간을 가진 후 저녁 먹은 것을 소화도 시킬 겸 우리의 끈끈한 애정과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공동체놀이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공동체놀이는 인간웃음을 걸판나게 치렀는데 말판위를 오가는 말들은 신났지만 정작 었어졌다 누웠다는 반복해야 하는 웃들은 점점 고통을 하소연하며 몸동작이 둔해지는 것을 주변사람들은 안스럽게 보아야만 했다.

마지막에 말들의 이빨 건강상태를 보겠다며 사회자가 들어든 팔죽만한 당근.

모두들 기겁을 하고 난리들이었지만, 나중에 보니 말들이 먹다 남은 당근은 공정놀이 감시단(!)으로 뛰던 임신부교사들이 맛있다고 죄다 들고 있었다나!



마지막날인 1월 5일에는 일본보육연수 보고대회 후 교사들의 건강을 위한 '요가 배우기' 시간을 마련하여 굳어있던 교사들의 몸을 푸는 통에 여기저기서 "옥 옥"대는 신음소리도 많이 들렸다.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수고했던 최현숙 전회장을 위한 깜짝쇼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각 지역의 교사들이 조금씩 정성을 보탠 선물과 꽃다발 증정이 바로 그것. 최현숙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퇴임사를 통해 지탁연처럼 가장 애정이 넘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며 평회원으로서 다시 활동을 하는 전례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는데, 최 전회장은 올해 카톨릭대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보육사업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학습하고 고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현숙 전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남미영 신임회장은, 최 전회장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만큼 최선을 다해 새로운 지탁연 건설에 회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힘차게 앞장서겠노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신임회장님의 폐회선언으로 다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내년 겨울수련회를, 1년간 열심히 생활하고 다시 모인 우리들의 활기찬 웃음으로 가득 채우리라 기대하며.....

새 얼굴

1996년, 지탁연을 임차게 이끌어갈

새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위임

편집부에서는 이번 제11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회장단과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고 약간의 호구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성명(직위, 소속시설)

- | | |
|-------------|----------------------------|
| 1. 나이와 결혼여부 | 4. 아동관이나 아동교육관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
| 2. 보육사업 경력 | 5.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해줄 수 있는 것. |
| 3. 함께 사는 가족 | 6.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

이제 우리와 함께 지탁연의 큰 살림을 꾸려갈 새 얼굴들을 만나볼까요?

남미영(회장, 새터어린이집)

- 36세, 기혼
- 만 9년
- 남편과 두 아들.
- 더불어 사는 아이로 키우자!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 모습만큼이나 포근한 사람. 웃는 모습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동심, 그 자체다.

위양자(부회장, 군산지역장, 해뜨는 동산)

- 33세, 기혼
- 만6년(햇수로 8년째)
- 남편과 두 아들
-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사회권(교육, 보육 등등)을 지키는 어른들과 함께 살 때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다.
- 밥!
- 마음이 너무 어려서 대가 세졌으면 좋겠어요.

임남희(부회장, 안산지역장, 오손도손)

1. 30세, 기혼
2. 만 6년
3. 2남(1남:남편, 2남:아들)
4. 아이들은 다 좋다.
5.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무공해 한정식!
6. 되게 씩씩하고 재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희망으로 바라보는게 임남희씨의 장점!

백해영(남부지역장, 다우리어린이집)

1. 32세, 기혼
2. 만 2년
3. 남편과 7개월된 남자아이.
4. 험난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따뜻한 아이.
5. 간식, 열심히 기저귀 가는 것.
6. 한다면 하는 무서운(?) 사람

김연숙(봉천지역장, 재룡동이예기방)

1. 28세 미혼
2. 92년 1월부터.
3. 다른 가족은 기재할 필요없고 "큰 언니 신랑 구함"
만 37세, 직업:고등학교 교사,
미모:뛰어남.
4.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5. 입맛 당기는 식사, 잠 잘오는 옛날 얘기, 우는 아이 달래기(즉, 못을게 하기)
6. 수다와 웃음, 첫인상과 다른 따뜻함

이숙희(인천지역장, 예술어린이집)

1. 35세, 미혼
2. 만 8년
3. 부모님과 할머니
4. 나도 남도 사랑하는 아이.
5. 웃어주기?
6. 너무나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래서 좋은 사람.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이 사람이 좋다!

나은미(동부지역장, 오손도손)

1. 30세, 기혼
2. 만 3년 3개월
3. 남편과 임신 30주된 뱃속의 아기.
4. 사랑을 나누는 아이.
5. 노래와 율동, 식사, 동화 읽어주기...
6. 외유내강, 21세기 미학의 극치!

이기원(수원지역장, 올망졸망어린이집)

1. 30세, 미혼
2. 91년도부터 시작.
3. 웅기종기어린이집의 지연, 이주영 선생님과 같이 살고 있다.
4. 아이, 그 자체로 봐야 한다.
5. 동물홍내 내는 것(명명이와 호랑이, 귀신 등등)
6. 멍치만큼이나 넓은 가슴을 지닌 지역장.
결혼은 안해도 좋으니까 애인은 있으면 좋겠다.

이난희(대전지역장, 샘골어린이집)

1. 27세, 미혼
2. 만 4년
3. 현재는 혼자 산다.
4. 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
5. 글세... 밥은 잘 해주는데...
6. 우선 성격이 활발해서 좋다. 그 외에도 좋은 점은 너무 많죠!

임윤숙(천안지역장, 채송화어린이집)

1. 29세, 기혼
2. 4년째
3. 남편하고만 살고 있음.
4. 우리는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해요.
5. 동화책을 많이 읽어준다.
6.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장정숙(부산지역장, 칙칙폭폭놀이방)

1. 32세, 미혼
2. 3년
3. 1남3녀중 장녀
4. 과잉보호보다 무관심이 낫다.
5. 책 읽어주기(동화책) "할아버지가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6.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은 과감히 밀고 나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

박화명(광주지역장, 톨툴이어린이집)

1. 26세, 미혼
2. 4년째
3. 부모님과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음.
4. 아들은 희망이다.
5. 기저귀를 잘 갈아주고 다른 건 몰라도 떡볶이 하난 잘한다.
6. 사람들 잘 챙기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애교도 있어서 편안하게 대해준다(회의 참여 독촉할 때조차도).

임현정(전북지역장, 금암어린이집)

1. 27세, 미혼
2. 6년째
3. 엄마랑 아빠랑.
4. 더불어 사는 아이.
5. 율동 하나는 자신있다.
6. 키가 작은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일을 추진하는 걸 보면 놀라워요.



보육시책

'96년도 보육사업 사업방향

보건복지부

I. 보육사업 현황과 '96년도 시책방향

1. 보육사업 현황

가. 보육시설 현황

(1995.9.30. 기준)

구분	운영형태	보육시설(개소)	보육아동(천명)	비고
계	-	8,567	282	-
◦ 공공보육시설 (국고보조대상)	-	1,922	155	-
- 국공립보육시설	- 정부보조	1,015	79	- 설치비 100%, 운영비 50% 수준 보조
- 비영리법인보육 시설	- 정부보조	907	76	- // (부지자체확보)
◦ 민간보육시설	- 보육료로 운영	6,576	125	- 개인, 단체 등 (인가·신고)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설치 및 운영비 부담 (50%)	69	2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 - 보육수당 지급(18개소)

나. 보육료 부담

-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1만명)는 무료, 저소득자(8만명)는 50% 수준 감면
- 표준보육단가('95 : 93천원~280천원)내에서 시·군·구별로 별도고시

2. '95년도 주요업무실적

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95~'97)추진

◦ 목표

- '97년까지 보육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 30% -> 95%
- 보육시설 7,590개소 확충('94.3 : 6,088 -> '97 : 13,678개소)

◦ 소요예산 : 12,891억원

- 재정 6,828, 국민연금 5,500 고용보험 563

◦ '95 확충실적(3/4분기까지)

	'94.12	'95.9	증감
- 보육시설(개소)	6,975	=> 8,567	=> 1,592(23%)
- 보육아동(천명)	219	=> 282	=> 63(29%)

나. 국민연금기금 용자사업 실시

◦ 기업, 개인, 단체, 법인 등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

◦ 국민연금기금으로 용자사업 실시(1,500억원)

구분	용자조건	용자기준	용자한도액
시설건축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연리 9.6%('95)	◦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교재교구비	◦ 9억원이하 (평균 300만원)
시설설치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연리 9.6%('95)	◦ 건물대입비, 임대비, 시설비, 교재교구비	◦ 6억원이하 (평균 300만원)
시설기능보강비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연리 9.6%('95)	◦ 시설개보수비, 시설·장 비설치비, 교재교구비	◦ 6천만원이하

다.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완화

(80% -> 50% 이상)

◦ 직장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 인건비 지원(고용보험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적립액 약 1조원)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근거 신설

라. 보육의 내실화

- 보육교사(2급) 양성교육훈련 강화(8백시간 -> 1천시간 이상) 및 처우개선(15.2%)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개선
- 보육프로그램 신규개발(2종), 보급확대
- 월간 보육지 발간등 보육사업 홍보강화, 보육정보제공 및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보육정보센터 설치

3.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가. 보육시설 2,696개소를 확충하여 122천명을 추가보육

- 저소득층 밀집지역등 취약지역에 국고보조 보육시설 확충(1,050개소) 및 운영비 지원 확대(2,481개소 -> 3,495개소)
-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1,646) 유도
 - 국민연금기금 2,000억원 융자 : 1,570개소(민간 1,200, 기업 370개소)
 - 종합청사(1)등에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76개소) 유도
- 소요예산 : 4,443억원

나.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타용도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절차없이 중소규모 보육시설의 자유로운 설치 허용(건축법시행령)
- 택지개발지구내에 보육시설용지 확대
- 도시공원내에 보육시설 신·증개축 허용 추진(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다. 보육사업의 질적향상·내실화

- 방과후아동 보육 활성화 추진
 - 국민연금기금 500억원 추가융자 : 500개소(2만명)
 - 보육시설 입소연령 연장조치등 방과후아동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체계 정비 ('95.10 세계화추진과제 반영)
- 장애아 및 영아보육 활성화 추진
 -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150개소) 및 운영비 지원확대, 장애아 인정절

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 경증장애아와 일반아동의 통합보육 활성화방안 강구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2종)
- 국고보조 지방보육정보센터 시범설치·운영(2개소)
 -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육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 보육교사 처우개선(16.2%) 및 재교육강화

4. '96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

가. 목적

-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설치비를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아동의 건전보육과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나. 연도별 융자계획

(단위 : 억원)

계	'94	'95	'96	'97
7,500	1,500	1,500	2,500	2,000

다. '96 사업계획

- 융자금액 : 2,500억원
- 재원 : 국민연금기금
- 이자율 : 미정('95년도 9.6%)
- 융자대상자
 - 보육시설 및 관련기관을 신·증·개축하거나, 기존건물의 매입·임대 또는 교재교구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체, 단체, 학교, 법인, 종교시설 등
- 융자기준 및 조건 : '95년도와 동일
- 융자대상자 선정순위
 - 상시 여성근로자 및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사업장
 - 여러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자
 - 장애아, 영아 및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자

라. 주요현안문제

- 이자율 하향조정 검토중(9.6%→8% 내외)

참고

'96년도 보조금 예산(안) 개요

(백만원)

구 분	'95 예산	'96 예산안	증(△)감	%	주 요 내 역
계	82,967	109,801	26,834	32.3	
○ 시설운영지원 (종사자인건비)	36,844	67,128	30,284	82.2	○ 2,481→3,495개소
○ 저소득층 보육 아동 보육료 지원	26,974	21,302	△5,672	△21.0	○ 대상인원 : 89→58천명 - 법정 : 10천명 - 반액대상 : 48천명 * 반액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미만 가정
○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38	336	198	143.5	○ 대상 : 959→3,043개소
○ 농어촌소재 차 량운영비	485	552	67	13.8	○ 지원수준 : 300천원/개소
○ 시설신·증축 및 개보수	11,771	13,112	1,341	11.4	○ 대상:843→959개소 ○ 지원수준 : 1,200천원/개소 ○ 신축:150→150개소 (개소당 80명, 60.9백만원) ○ 증개축 : 75→100개소 (개소당 30.5백만원) ○ 개보수 : 98→100개소 (개소당 9.1백만원)
○ 보육정보센터 설치	-	91	91	신규	○ 보육정보센터 1개소 설치 및 운영지원
○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	577	1,050	473	81.9	○ 대상 : 55→100개소
○ 종교 및 학교 부설 설치	6,125	6,125	-	-	○ 지원수준 : 30백만원/개소 ○ 대상 : 700개소
○ 시설장비지원	53	105	52	98.1	○ 지원수준 : 25백만원/개소 ○ 대상 : 75→150개소 (개소당 200만원)

- * '96년도 지방비부담:127,239백만원

II. 주요현안과제

1. 세계화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명	세 부 추 진 계 획	시행일정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 설의 획기적 확대	(1)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보육아동을 둔 학부모가 직접 관장하는 방식의 보육시설임 ○ 공동육아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민간보육시설과 동등조건으로 용자지원('96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용자계획에 반영) - 우선 시·도별 1개소 이상의 시범사업 실시('96~'97)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방안 강구 ○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96년도 보육사업지침에 공동육아협동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도입 ○ 공동육아협동조합등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비가 국고지원되는 광역단위의 보육정보센터를 '97년까지 설치추진하고, 동센터에 보육지도원·간호사·영양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시설 지원 - '95년 1개소, '96년 1개소, '97년 4개소, '98년 9개소	'96.1
	(2) 종교단체 시설활용 ○ 종교시설의 보육사업 무자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종교시설등 부설 보육시설 2,100개소 설치가 계획되어있음 - 1개소당 설치비 2천5백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2명 한도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기초지) - 지원대상을 종교법인에서 교회·사찰 등 시설명의로 등록된 종교시설까지 확대 - 설치비 지원규모도 1개소당 2천5백만원에서 보육아동 규모에 따라 5천만원까지 지원확대 ○ 종교시설의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 건축법령상 종교시설에 일정규모 이하의 보육시설 설치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폐지(건축법시행령 개정) - 인가(신고) 신청시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1층 설치원칙 완화 및 각종 보고의무 간소화 등(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96.1 '96~'98 '95~'97 '95.9
2. 방과후아동 지도제도 도입	○ 방과후아동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가능)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이미 관장 ○ '95년도 보육사업지침으로 국민학교 저학년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사업 실시 유도(약 1백개소 2천명) - 부산광역시 : '94.12.보육대상 연령을 3학년까지로 연장하고, '95년 영세아동 방과후 보육비로 1억4천만원 지원(지방비) - 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아동 보육 실시('95년 291개소 중 62개소)등 ○ 방과후아동 보육 활성화를 위한 향후 시책방향 - 방과후아동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설정 : 보육교사 1인당 30명(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방과후아동 전담보육시설 설치인가, 중앙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보육시설의 방과후 아동 보육 개방조치등 활성화 유도:소요재원은 '96년 보육시설 설치용자금 추가확보액 500억원으로 충당 - 방과후아동 보육교사는 기존보육교사(연간 4만명 양성) 활용 - 보육관련 행정업무의 급증 및 방과후 보육사업 동시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등 일선집행기관의 보육관련 행정조직 및 인력 보강	'96.12 '96.1 '96.1 '96.1 '96.1 상반기

2. 장애아 및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가. 요약

- 장애아 및 영아보육은 유아보육에 비하여 보육의 난이도가 높고 보육료 수입도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도 단순보호차원에 불과함.
- 장애아 및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아 및 영아전담 국고보조 보육시설 50개소를 신증축하고 100개소를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에 부설 설치하며, 장애아 특수교사 확보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요 보육교사 70%의 인건비 보조, 농어촌 보육시설에 준하여 월 10만원의 차량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 지원 및 장애아·영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
- 국민연금기금으로 장애아 또는 영아전담 민간보육시설을 우선 용자지원하고, 월 1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며, 종교·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준하여 소요 보육교사 50%의 인건비 지원 및 장애(영)아 담당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97년까지 150개소를 설치유도
- 따라서, '97년까지 보육시설 1만4천개소를 확보하고 영유아 63만명을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3개년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일부 추가소요 예산을 별도확보하여 장애아 6천여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5만7천여명의 영아보육을 '97년까지 13만여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아 및 영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보호자들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

나. 장애아 및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1) 제도현황

○ 장애아 및 영아보육 현황

(95.6.30)

구 분	장애아(추정)	영 아			유 아
		소계	2세미만	2세	
계	602	57,303	15,328	41,975	212,235
국고보조	482	30,591	8,332	22,259	122,870
직장보육	-	276	45	231	1,304
민간보육	120	17,172	4,462	12,710	60,211
가정보육	-	9,264	2,489	6,775	27,850

○ 종사자 배치기준

(40명 보육기준)

구 분	장 애 아	영 아		유 아
		2세 미만	2세	
보육교사	8명(5:1)	8명(5:1)	6명(7:1)	2명(20:1)
원 장	1명	1명	1명	1명
취 사 부	1명	1명	1명	1명

※ 장애아 보육교사 50%는 특수교사 채용

○ 시설기준 : 장애아 및 영유아 1인당 1.1평 이상

-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 장애인 이용시설기준 적용

○ 장애아 및 영아 보육료

(95 표준보육단가 기준)

구 분	국고보조 직장보육	민간보육	가정보육
장 애 아	197,780	244,830	286,530
영 아	2세미만	197,780	244,830
	2세	164,010	197,740
유 아	93,000	121,620	167,520

○ 지원기준(국고보조 보육시설)

- 장애아 또는 영아 전담보육 : 소요 보육교사 70% 인건비 지원

· 장애아 전담 : 7개소(319명)

· 영아전담 : 6개소(359명)

- 일반아동과 통합보육 : 소요 보육교사 50% 인건비 지원

· 영아반을 50% 이상 편성운영시 추가 소요교사의 70% 인건비 지원

2) 문제점

○ 장애아·영아담당 보육교사의 근무강도는 높으나 보수수준은 일반교사와 동일하므로 이직율이 높고, 우수교사 확보 곤란

○ 민간보육시설은 높은 보육비로 장애아나 영아를 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과중

○ 장애아 또는 영아 보육시 보육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유아보육 선호, 일부 장애아 또는 영아보육 민간보육시설은 운영난으로 단순보호 수준에 불과

40명 보육시 보육료 수입·지출 비교분석

(백만원)

구분		장애아·영아보육		유아보육	
		국고보조	민간보육	국고보조	민간보육
수입	계	112	94	55	47
	보육료	76	94	36	47
	보조금	46	-	19	-
인건비지출		91	91	19	19
수지분석		21	3	36	28

• 보육료 : 표준보육단가 80% 수납기준,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비교

3) 개선대책

가) 장애아 또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

'97년까지 장애아 또는 영아 전담 국고보조 보육시설 150개소를 설치하고 차량운영비·장애(영)아담당 교사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대폭확대하며, 장애아 또는 영아 전담 민간보육시설 150개소를 설치유도하고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에 준하여 운영비 지원

- 서울시 : 100개소
- 광역시(경기포함) : 120개소(각 20개소)
- 도 : 80개소(각 10개소)

○ 국고보조 보육시설(150개소)

- 장애아 또는 영아전담 보육시 신축, 증개축비 우선지원(50개소)
- 장애인복지관, 장애아 특수학교 등에 부설 장애아 또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비를 특별지원(100개소)
- 1개소당 시설비 2천5백만원->5천만원
- '96년도부터 농어촌 보육시설에 준하여 월 1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연간 소요예산 약 1억원) 및 '97년부터 취사부 인건비 지원(연간 소요예산 약 7억원)
- '97년부터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교사(6,000명)에게 월 5만원 수당지급 추진(연간 소요예산 약 9억원)
- 서울시('95) : 영아보육교사 수당 월 5만원, 보조원 1인 지원
- 장애아(영아포함)반을 50% 이상 편성운영시 추가소요교사의 70%인건비 지원

○ 민간보육시설(150개소)

- 장애아 또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설치비 우선유자
- '96년부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특별지원(1개소당

연간 30만원->연간 120만원)

- '96년부터 종교·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소요예산 '96년 약 7억원, '97년 약 14억원)
- 장애(영)아 담당교사 월5만원 수당지급(연간 소요예산 약1억원)

나) 제도개선

○ 장애아 인정절차 간소화(지침개정)

- 장애아 등록율이 저조함을 고려,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이용 조치
- 장애아의 경우 입소대상연령을 '96.1부터 12세까지로 확대(중앙보육위원회 의결사항)

○ 일반아동과 장애아의 통합보육 활성화 조치(규칙개정)

- 장애의 종류에 따른 해당분야의 의사가 일반아동과 통합보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아(특수교육대상자 포함)의 시설 및 종사자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보육시설의 장애아보육 활성화

- 보육교사 1인이 장애아 5명까지 보육(10인당 특수교사1인)
- 시설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설치기준 적용

○ 경증장애아 중심 보육(장애인복지시설과의 역할분담)

-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또는 일반아동과의 통합보육대상 장애아는 가급적 경증장애아를 중심으로 보육하고, 중증장애아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용시설 이용유도

3.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계획

1) '95년도 개발·보급계획

- '95년도에는 기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아래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 '95년도 연구용역비 60백만원, 보급비 30백만원
- 용역개발 프로그램(2개)
- 전국 규모의 표준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보육시설에서의 표준 급·간식프로그램 개발·연구
- *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에서 연구개발중
- 보급계획 : 보건복지부 개발('92),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 (1절 10권)

2) 향후계획

○ '96년도 개발·보급계획

- 연구용역비 : 60백만원
-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 1-2종 개발
- 보급계획 : '95년도 개발프로그램
- 민간복지재단의 재원활용 추진

○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중장기계획 수립

II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시설 및 종사자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조정하여 보육시설의 확충·내실화를 도모하고,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설치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육수당 지급시 보육시설이용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 이상 또는 노·사가 따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완화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구비서류중 인가(신고)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 신규위탁선정시 위탁대상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계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로 함(안 제12조제1항)

라. 보육비용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보육아동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하도록 하여 보육료를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자율화함(안 제27조제1항)

마. 보육시설의 입지선정에 보육수요를 추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규모를 상시 영유아

16인 이상에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으로 확대하되, 가정보육시설의 규모를 그에 상응하도록 5인 이상 20인 이하로 조정하며, 사무실·양호실·수유실 등 부대시설의 의무설치기준을 폐지함(안 별표2).

바. 보육교사 1인당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의 수를 취학아동은 30인까지로 하고 장애아동은 5인까지로 하며, 의사(또는 촉탁의사)·사무원·관리인·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시설의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또는 간호보조사)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사. 보육교사 1급자격이 인정되는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에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별표4 및 부칙 제1항)

아. 교육훈련시설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시설에 66제곱미터 이상의 도서실 및 181.5제곱미터 이상의 보육시설을 추가하되, 이 규칙 시행전에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된 시설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도록 함(안 별표5 및 부칙 제2항)

자. 보육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교육훈련과목중 사회개발론을 삭제하고 방과후 아동지도, 영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영유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영유아 관찰 및 평가, 자원봉사론, 교육학개론 및 예절교육을 각각 신설함(안 별표7).

위의 '96년도 보육사업 사업방향은 지난 12월 중앙보육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이번 보육사업 방향에서는 장애아·영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과 부모출자의 협동조합식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영아프로그램, 급간식프로그램 등 보육사업의 내용에 대한 지원, 국민연금 이월 인하 등 시설의 확충과 함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호에는 보육사업지침을 분석, 정리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어린이집 식단

봄철 어린이집 식단

오경민 / 영양사

입맛이 되살아오는 봄.

달래된장국과 썩국으로 봄철 그윽한 향기를 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호에서는 봄철 어린이집 식단의 한예를 소개한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란다.

10-12개월 이유식 식단

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빵죽	장국죽	달걀죽	쇠고기미역국과 밥	우동죽	말기과즙
2주	젓죽	흰살생선찜	호박죽	멸치죽	치즈죽	시금치죽
3주	닭가슴살죽	고구마두유조림	카스테라와 우유	달걀연두부찜	으깬감자	다진고기넣은 채소죽
4주	미역죽	당근과 사과조림	젓죽	달걀노른자와 다진 시금치 넣은 쌀죽	국수장국	채소죽

3-5세 식단

배\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오전 간식	우유	두유	우유	코코아	흰죽
	점심	밥 감자애호박국 미역줄기볶음 두부조림 김치	보리밥 콩나물국 돈육김치볶음 오이무침 깍두기	콩나물밥 감자국 도토리묵무침 달걀조림 배추김치	밥 쇠고기미역국 멸치볶음 연두부 김치	강남콩밥 썩국 달걀찜 달래오이무침 김치
	오후 간식	경단/식혜	떡꼬치	절편/말기	떡볶이	고구마튀김
2주	오전 간식	우유	두유	우유	우유	크림스프
	점심	보리밥 새알미역국 콩나물무침 두부원자전 김치	비빔밥 달걀실파국 깍두기	밥 냉이된장국 취나물무침 취포채조림 김치	차조밥 순두부찌개 젓임찌 가자미구이 김치	밥 김치된장국 호박나물 고등어무조림 김치
	오후 간식	과일샐러드	김치전	편달걀/주스	경단	콘후레이크/우유
3주	오전 간식	요구르트	우유	우유	두유	크림스프
	점심	밥 오징어무국 감자채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수수밥 두부된장국 느타리콩나물무침 낙지볶음 김치	밥 미역국 도라지북어포무침 양배추찜 깍두기	카레라이스 두부김치국 어묵볶음 김치	현미밥 닭곰탕 상추겉절이 깍두기
	오후 간식	편감자	떡꼬치	맛살튀김	식빵튀김	떡볶이
4주	오전 간식	요플레	우유	우유	코코아	우유
	점심	보리밥 달래두부된장국 우영조림 오징어젓무침 김치	김치볶음밥 미역국 단무지무침 깍두기	밥 김치콩나물국 코다리찜 시금치나물 김치	차조밥 생선찌개 연근튀김 오징어채볶음 김치	콩밥 조개탕 오이맛살무초무침 달걀볶음 김치
	오후 간식	편빵/우유	고구마채튀김	경단/토마토	카스테라/우유	말기

영국여행기

낯설고 물설은 타향에서(3)

정희연 / 본회 전 부회장

1. 크리스마스 방학

12월 16일부터 1월 7일까지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었다. 우리로 치면 겨울방학인데 우리처럼 길지는 않다. 대신 여름방학이 길고 부활절 방학이 4월에 있다.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년중 가장 큰 명절이다. 10월부터 온 거리와 상점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든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거리마다 밝혀지는 장식전등, 어떤 상점은 아예 한시적으로 크리스마스 전문상점(카드, 선물,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등등을 파는 곳)으로 업종전환을 하기도 한다. T.V, 라디오, 잡지 등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이야기, 크리스마스때 무슨 음식을 해먹을까 등 온통 크리스마스 일색이었다. 12월말부터는 1년중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세일이 한달간 계속된다. 작은 가게부터 큰 백화점까지 동시에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이렇게 거의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다. 사람들 얘기로는 1월말 크리스마스 세일이 끝나면 4월 부활절 대목을 향해 'Easter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 모두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전략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는 상당히 들뜨지만 정작 크리스마스날은 무척 조용하게 보낸다. 우리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쯤 되는 명절이 크리스마스이므로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집에서 하루를 지내거나 따뜻한 곳으로 여행들을 많이 가기도 한다. T.V에서는 매일 푸른 하늘, 야자수,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여행지들을 소개해 시청자들을 유혹하곤 한다. 이곳의 겨울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춥지는 않은 편이나(영하로 내려간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워낙 습하고 햇빛을 볼 수가 없어(일주일 내내 햇빛구경 한번 못한 적이 많다. 그리고 한나절 잠깐 해가 났다 다시 일주일정도 잔뜩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는 한다) 대부분 영국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중 따뜻한 열대성 나라 여행가게 꿈인듯 하다.

나와 Mitha(인도네시아 친구)는 일주일동안 파리어행을 했다. 여행경비가 예상외로

비싸지 않아 무리를 하여 시도 해본 여행이었다. 가서는 파리에서 공부중인 학교후배네 집에서 숙식을 했으므로 그다지 경비가 들지 않았다. 우선은 유명하다는 곳은 거의 모두 갔다. 노틀담 사원, 개선문, 에펠탑, 베르사이유, 사 크레 케르 성당,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센터, 라 데팡스, 세느강(템즈강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좁았다. 우리 한강만한 강이 없다더



↑ Play bus의 책임자 Ann Rockett과 함께

니 그걸 실감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밤중에 올라간 에펠탑에서 내려다본 파리지네 야경이었다. 세느강변을 따라 일렬로 늘어서 거리를 비추던 가로등, 상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파 조명. 유명한 건물들마다 켜져있던 조명등, 차갑고 투명한 파리의 밤공기, 질푸른 밤하늘에 떠있던 둥근 달. Mitha와 나는 마냥 파리의 야경에 취해 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근사한 와인 한병을 사다 마시면서 그 밤을 보냈다.

이번 여행중 한가지 확인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참 많이 하는구나'하는 것이었다. 일본관광객들 다 어디가고 한국사람들만 남았는지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게 한국 관광객들이었다. 여행이 끝날 때쯤엔 Mitha가 먼저 한국말을 알아듣고는 "저기 또 있다, 니네 나라 사람들"할 정도였다. "야! 그리로 가면 안돼", "여기다, 아무개야, 여기야" 외치는 소리에 돌아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 또 그게 '국가의 부'의 척도가 되는지 Mitha는 못내 시샘하는 눈치였다. "그래, Korea는 부자나라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지" 등등.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한팀도 못만났기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special friend네 등 몇곳 초대받은 집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방학은 끝나있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휴가 끝나는게 못내 아쉬웠겠지만 이번만은 오히려 끝나는게 반가울 정도였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1월 8일부터 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봄학기가 시작된 것이다. 책상위에는 새로이 과제물들과 읽어야 할 책들이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렇게 여름학기만 보내면 모든게 끝나"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2. Play group,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처음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5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한곳씩 시설을 방문하였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곳들이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곳 등 다양했다.

지난호에 이야기한대로 Play bus, Busy Bees, Port Hill Mom & Toddler club, Griffon 4곳을 소개한다.

Play bus는 말 그대로 Bus가 놀이공간이다. 쉽게 생각하여 이동식 도서관을 연상하면 될 것 같다.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까지 갈 형편이 못되는 곳에 살 경우 도서관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Play bus도 놀이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은 있으나 집이 외따로 있거나 근처에 어떠한 교육시설도 없는 낙후한 지역으로 Bus가 가는 시스템이다. 이 곳은 마을마다 다운타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가가 형성되고 마을을 벗어나면 목장지대나 밭들이 나타나고 그 사이사이에 농가들이 있다. 이 외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근처에 시설이 없는 곳을 위해 Play bus가 움직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것과 아울러 부모들과 근처 주민들에게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Play bu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편모, 편부가정이나 편에이저 엄마, 저소득층 가정(실업상태이거나)이므로 사회적 혜택에서 항상 소외되어 있고 이들에게는 적절한 도움-아이를 맡겨놓고 일 수 있는 여가를 제공하는 것,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네트워크 시켜주는 것, 여러가지 사회보장혜택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연결시켜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이들의 연령은 5세 이하로,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 함께 놀거나 맡겨놓고 가거나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다. 이용료는 우리처럼 한달 단위가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Play bus는 지방정부에 자선단체(charity)로 등록되어 있고 주요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다. 처음 가서 비스안의 게시판에 "donation(기부)"라고 적힌 것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는데 이들에게 이용료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Play bus의 운영을 위해 기부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었다. 보호자와 함께 온 경우 1,800원 정도, 아이를 놓고 간 경우 2,400원 정도, 저소득층 가정일 경우 600

원 정도이며 만 1돌 이하의 경우 무료이다. 이 Play Bus는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개인영역(영국의 교육시설은 크게 Private Sector와 Statutory Sector로 나뉘는데, 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들을 말한다)이지만 지방정부에 charity로 등록되어 있어 전체운영의 65%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은 받고 있지만 Statutory Sector에 속



↑ Play bus의 바깥풍경

해있지는 않다. 영국은 우리와 달리 지방자치제가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기본골격은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각 지방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정해지므로 시설조건, 교육비 등에 있어 약간씩 다르다. 이것은 교육뿐 아니라 의료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다. 65%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라 Play bus는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행사를 갖는데 이는 우리 어린이집들이 하는 수익사업과 비슷하다. 지난 가을에는 근처 운동장을 빌어 티켓을 발행하는 작은 축제를 펼쳤는데 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게임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금을 모았다고 한다. 비단 이 Play bus뿐 아니라 다른 Play group을 가보아도 대부분 이런 기금모금행사를 갖고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기금모금행사가 아주 다양하고 자주 열린다. 주민들의 참여도 매우 자연스럽게 호응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지역의 Play bus들은 National Play bus Association에 소속되어 있다. NPA는 1979년 결성되었는데 각 Play bus들에게 정보제공, 각종 예로점에 대한 상담, 기금모금방법 등에 대한 상담, 설립절차나 운영전반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내가 방문했던 Ware Play bus는 1982년 시작되었고 5명의 교사가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Ware 한 지역만 20명이 등록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근처 9개 지역을 도는게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반 하여 매일 다른 지역을 순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어린이가 매일 Play bus에 참여할 수는 없다.

처음 Play bus를 보는 순간 받은 인상은 참으로 유용하고 참신한 발상이라는 점과 버스의 외양이 아이들이 좋아하게 잘 꾸며져 있다는 점이였다. 넓다란 Pub(영국의 전통적 선술집, 낮에는 식사나 스낵을 판다)의 주차장 한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도 Pub으로 부터 무료임대받은 것이란다. 한편에는 제법 쓸만한 잔디밭도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조립식 미끄럼틀과 터널놀이설 등을 꺼내놓고 바깥놀이를 한다. 이 버스는 2층버스인데 상상하기에는 아무리 2층버스지만 좁아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구조를 짜임새있게 만들어 놓아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아래층은 조그만 화장실이 한칸, 모래놀이 코너, 역할놀이코너(그날은 시장놀이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페인팅코너가 있었고 2층에는 간이부엌과 도서영역, 2층의 3/4정도를 차지하게 매트 깔아놓아 대근육놀이를 하게끔 해놓았다.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엄

↓ Play bus의 2층.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놀고 있다.





↑ Play bus의 모래놀이 영역

적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모래놀이영역은 내겐 참으로 부러웠는데 여지껏 방문해본 모든 시설들이 이 모래놀이 영역은 꼭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수업시간에 교수도 여러번 강조한 바와 같은 이들은 Natural Materials(직역하면 자연재료물인데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지만 특히 기본적으로 이들이 Natural Materials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놀이, 모래놀이, 밀가루, 찰흙 등 반죽놀이를 말한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시설이나 실내에(실외에는 물론) 작은 싱크대에 항상 물을 담아놓아 아이들이 옆 선반에 있는 플라스틱병이나 호스, 인형 등을 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해놓고 또한 모래놀이 영역에도 아이들 키에 맞게 모래놀이대를 만들어 놓아 아무때나 모래놀이를 할 수 있게 해놓는다. 한국에 있을 때 한번도 보지 못한 모래로(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시설이 있겠지만 난 본 적이 없다) 아주 곱고 균질하여 아이들이 만졌을 때(나도) 질감이 무척 좋게 느껴지는 모래이다. 물을 부어놓으면 마치 찰흙처럼 반죽도 되고 또 금새 마르기도 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마땅히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충분치 않은 대부분 우리들 시설로서는 실내에서 물놀이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이 매우 부러웠다. (매일 바닥으로 쏟아지는 모래와 아이들이 돌리고 다니는 물은 어떻게 하냐고? 그 생각을 하면 나도 머리가 아찔해지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또 한가지 인상깊었던 점은 엄마들 대부분이 무척 어려보인다는 점이었다. 실제 영국은 턴에이지 엄마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곳은 16세만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일찍 연애하고(?) 일찍 성관계를 갖는(이건 Health시간에 교수가 한 얘기이다) 이들 풍토는 턴에이지엄마라는 또 다른 문제를 결과적으로 야기시킨다. 이 젊은 엄마들은 미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를 받아들

마와 함께 왔는데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며 쉬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사와 노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Play bus에는 특별한 일과표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교사도 무엇을 가르친다는 자세라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교구교재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러면서 작업을 도와주고

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므로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끼리의 상호교류 등이 Play bus가 갖는 주요목적중의 하나이다. 내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좋아 엄마들 대부분이 잔디에 앉아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특히 편모가정이라는 Ian과 엄마를 잊을 수가 없다. Ian은 2살로 제 또래보다 행동이나 말이 약간 늦은 편이었다. 엄마는 10대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로 매우 어두운 수심에 쌓인 인상이었다. 다른 엄마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허둥지둥 Ian의 뒤만 쫓아다니는 그 엄마를 보면서 영국사회의 다른 한면을 보는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그 다음 방문했던 곳은 Port Hill Mom & Toddler club이었다. 이 club은 지역의 한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건물 한켠을 사용하고 있었다. 약 30평쯤 대보이는 넓은 홀에 한쪽은 미끄럼틀과 여러가지 탈 것들이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4-5세트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각기 밀가루반죽놀이(여기서 나는 밀가루 반죽법이 담긴 페이퍼를 받았는데 실로 다양한 조리법(?)이 있었다), 퍼즐, 나무·플라스틱 블록, 크레파스와 종이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페인팅코너에는 이젤이 준비되어 아무때고 물감놀이를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물론 모래놀이 영역도 있다. 한쪽 코너에는 영아들을 위해 카펫을 깔고 영아들이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놓았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중간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이므로 Play bus에 갔을 때와는 부모들 분위기가 달랐다. 이 club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동반하게 되어있다. 리플렛에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이곳 역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신나게 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게 주요목표였다.

Play group에는 특별히 교사의 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Play bus에는 1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적절히 번역할 말을 찾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지칭하는 교사는 이곳에서는 4년제 학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나머지 2년제 코스나 1년제 혹은 그 이하의 다양한 훈련원에서 자격증을 취득

Port Hill mom & Toddler club.

↓ 역시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다.

한 사람들은 Nursery Nurse나 Co-ordinator, Play group helper 등 다양하다)과 나머지는 현재 공부중이었고 이 club은 교회 실무자 4명이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모두 상당히 나이가 든 부인들로 자격증은 없었다.

Port hill Mom & Toddler Club은 1975년 지역사회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해보자는 교회의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대상연령은 0-3세 아이들이고 이용표는



매학기당(1년에 3학기) 일반학교의 학기제를 따른다) 등록비(가족당) 600원 정도 내고 매주당 500원 정도(가족당) 낸다. 매일 여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3번만 오른다. 현재도 대기자 명단이 상당분량 쌓여 있다고 한다. 아직 정규 Nursery에 갈 나이는 안되고(공식적으로 Nursery는 5세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개별가정에서 제공해줄 수 없는 또래와 어울리는 집단적 체험을 Play group은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여기는 내가 방문했던 지난 10월에 기금모금행사로 우리로 치면 현웃, 현 놀이감, 현책 바자회를 열었다. 부모들이나 교회 신도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되파는 행사였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일정액을 기증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점점 참여도가 떨어져 이 행사가 오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였다. 이 대목에서 또 나는 우리의 현실을 떠올렸다. 많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예전처럼 활기찬 수익사업 행사가 점점 줄고 있는.

세번째 방문한 곳은 Busy Bees라는 Play group이었다. 이곳 역시 교회건물을 빌려쓰고 있었는데 교회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곳의 시설장은(여기는 서로를 Play group helper로 부르고 있었다) 자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Play group에 데리고 다니다 아이들과 지내는게 너무 재미있어서 아예 자격증을 따고 시설을 개원했다고 한다. 약 7-8년 가량 운영했다고 한다. 지난호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감이 가는 곳이었다. 시설과 교구교재는 그리 훌륭하달 것이 없었지만(모래놀이 코너는 역시 있었다) 무척 생기에 넘쳐있었다. 여지껏 내가 방문하고 현장실습해본 경험에 의하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주로 관찰자의 역할인 듯 하다. 어려서부터 아이들 스스로 모든 일을 하게끔 하여 별로 교사의 개입이 없어 보인다. 물론 우리와 같은 적극적인 스킨십도 보기 힘들다. 아침에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 아이가 있어도 '어쩌나?'하는 얼굴

↓ Busy Bees의 노래시간

로 바라보고만 있다. 그러다보면 또 울던 아이도 스스로 포기하고 놀이 속으로 섞이곤 하는 것이다.

Busy Bees는 그중 교사가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느껴져 분위기가 활기차 보였던 것 같다. 큰 홀 하나와 조금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큰 홀에서는 미끄럼틀과 역할놀이 영역이 있었고 작은 방에는 모래, 페인팅, 만들



↑ Busy Bees의 작은 방에서 이젤에 물감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helper.

현실을 떠올리며 우울해진다. 조건이 받쳐 주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물론 여기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일을 20년, 26년씩 해온 이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죽기 살기식으로 오직 신념과 의지만으로 일해온 지난 10년의 세월들. 현실은 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열악한 조건들은 일을 더 이상 발전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그들은 아이들이 좋아서, 혹은 이 일이 적성에 맞아서 등등 아주 소박하고 작은 이유로 20년씩 아이들을 돌보아 오면서 자신들의 생활(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해결해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시설은 Griffon이라는 곳으로 제일 좋은 시설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약 80여명 되는 공간에 0-5세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1990년 1월에 개원한 이 시설은 몇명의 친구들이 함께 자금을 모아 설립했다고 한다. 시설도 제일 좋은 반면 이용료도 제일 비쌌는데 종일반은 0-2세까지는 주당 114,000원 정도(매일은 24,000원), 2-5세는 주당 90,000원 정도(일일은 19,000원 정도), 오전반이나 오후반은 2-5세의 경우를 때마다 10,000원 정도였다. (시간은 오전반이 8:30-1:00, 오후반은 1:00-5:30). 종일반의 경우 도시락은 가져오게 되어있다.

각 Play group들은 지방정부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한다(주로 안전관리 사항들). 법령에 따르면 0-2세까지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 2-3세는 1:4, 3-5세는 1:8이라고 한다. 영아반은 15명의 아기와 4명의 교사(단기 코스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 이들은 서로를 Homebase officer라 부르고 있었다)가 있었고 나머지 25명 정도는 24개월 이상의 아이들이었다. 총 11명의 Homebase officer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영아반이었는데 완전히 큰 아이들 방과는 분리되게 만들어 조용하고 쾌적했다. 넓은 방이 둘로 나뉘어 한쪽방은 유리창으로 된 칸막이로 침

기, 퍼즐, 블록영역이 있었다. 간식이 끝나고 매일 모두 큰 홀에 모여 교사의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와 율동을 하는데 helper중에 꽤 나이든 분이 있었다. 가끔씩 가사와 율동을 틀려가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개의치않고 하는지 자못 내게는 감동스러운 느낌까지 주었다. 이분도 그렇지만 다른 시설에서도 20년 넘게씩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을 보면서 또 난 우리의

실이 있었고 물론 아이들 수에 맞춰 베이비침대가 있었다. 밖은 각종 놀이기구와 셋길 수 있는 간이목욕탕과 간이부엌이 있었다.

나머지 큰 아이들 영역은 3개의 클래스룸과 큰 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시설전체를 설립자가 직접 도안한 카펫으로 깔아놓았다. 각종 모형들이 다양한 색깔로 수 놓여져 있어 여러가지 게임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3개의 클래스룸은 3세, 4세, 5세로 나뉘어 사용되는데 방마다 그린, 옐로우, 블루라는 이름이 붙여있듯이 모든 것(커튼, 책상, 의자, 카펫 등등)이 그 색깔을 따라 구비되어 있었다. 환경구성도 세심히 하여 아이들 작품게 시나 환경관 꾸미기도 잘 해놓은 편이었다. 특히 부러웠던 곳은 교구창고였는데, 각종 아이들의 교구교재가 선반마다 가득차 있었다. 다른 시설들(특히 statutory영역의 Nursery school들)에 가도 넘친다 싶게 놀이감과 교구교재들이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래도 그들은 항상 모자란다고 한다. 이곳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주로 런던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런던에 살며 Griffon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의 이용료가 좀 비싼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걸로도 운영은 어렵고 London 쪽으로 갈수록 더 비싸진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서 정부지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지원은 전혀 없으며 언제나 예산이 모자란다는 핑계만 낸다는 약간 불만 어린 토로를 했다.

이상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루씩 방문했던 시설 네곳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과 또한 짧은(?) 영어로 놓친 정보 또한 많고 제한된 내 시각으로 충분히 독자들에게 전달됐을까도 의문이다. 언제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과 틀린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편집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전체적인 생각은 Play group은(영국에서는 50년대 이후부터 시작한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조금 새로운 개념이라는 점이다. 첫째 아이들에게는 놀이공간과 또래집단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부모들에게는 그들 마음대로의 상호교류할 수 있는

Griffon의 책임자와 함께.

↓ 왼쪽의 문이 교구창고이다.



는 편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 둘째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이웃과 단절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지연령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 세째 일과구성이나 이용료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짜여져있다는 점 등이다. 3-4살 된 아이들이 속셈학원이나 미술학원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전 Play group에서 신나게 노는 것 그 경험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

았다.

위의 시설 네곳의 방문을 끝내고 나는 statutory영역에 속해있는 Hare Street Nursery에 이주일 가량의 현장실습을 했다. 다음호에는 이 Nursery를 소개하기로 한다.

3. "이모가 노태우냐? 돈을 먹게?"

한참 이곳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우리 사회는 두 전 대통령의 구속과 5.18관련 등으로 떠들썩했던 모양이다. 뉴스나 신문도 잘 보고 읽을 틈이 없는 나로서는 가끔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편지에서 대충 윤곽을 잡았을 뿐이다. 얼마다 답답했던지 모른다. 그전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소설보다 더한 흥미진진함'이란 친구의 편지귀절이 떠오른다. 세상은 변하는가?

일견 그런듯 보이지만 또 그 이면엔 어떤 다른 파워게임이 펼쳐질 것인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로서는 도무지 감 잡을 길이 없다. 그저 간간히 들려오는 고국소식에 목말라 할 뿐이다.

내 친정 동생은 가끔 편지 말미에 언니 우울해하지 말라고 우스개소리를 곧잘 써보내곤 한다. 한참 노태우의 구속으로 떠들썩한 무렵이었던 것 같다. 동생의 편지엔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하루는 동생이 제 딸과 무슨 놀이를 하는데 딸네미가 동전을 엄마손 위에 올려놓으면 동생이 그걸 골격 삼키는 척 하는 놀이였단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민구(우리 아들)가 제 이모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왈, "이모가 노태우야? 돈을 먹게?"(이 편지를 받고 나는 사뭇 감격했다. '이제 내 아들이 엄마가 없는 사이 정치적 문제까지 식견을 넓혀가고 있구나(?)'하고.)

정희연 선생님이 목고 계시는 곳의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매번 우리에게 꾸준히 영국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정희연 선생님께 짧은 인사라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Chung, Hee Yun
28N, YWCA Alexandra Hostel,
Fourth Ave, HARLOW,
Essex, U.K.
CM20 1DN

지상강연

우리의 장단 · 우리의 노래

임수정 / 국악인

한국유아교사국악회

1. 글을 시작하며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발 맞추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각계,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민족의 가장 고유하고, 우수한 문화만이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양의 문화를 추종하고, 그대로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세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정책이 서구 일변도여서 이제 와서 어디부터 우리 것을 찾아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음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각 민족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듯이 각 민족의 음악 또한 고유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음악인 국악은 어떠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국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은 전체 음악교과목 중에 차지하는 국악의 비중이 10%도 안 되었던 과거의 음악교육정책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어린시절(영·유아기)의 음악체험은 평생동안 한 개체는 물론 한 공동체의 음악양식을 지배한다. 그뿐 아니라 미적 판단 기준도 지배하고, 그로 인하여 예절적 창조가 된다. 따라서 국악의 중흥은 영·유아기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기본으로 지금부터라도 국악의 씨를 뿌리는 작업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2. 국악동요

1) 국악동요의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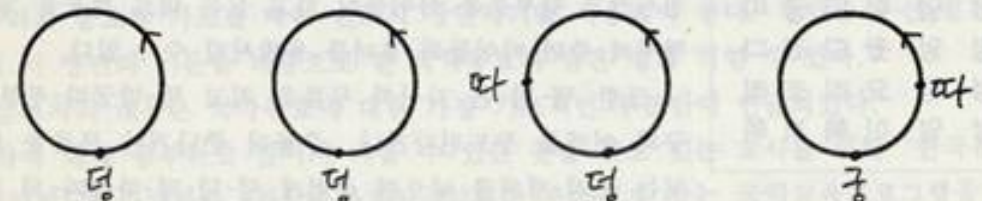
국악동요란 국악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아이들에게 적합한 노래를 뜻한다. 그러면 국악의 특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국악의 특성은 바로 '장단'에 있다. 장단은 '하나의 소리가 시작하여 끝나는 사이에 사람이 호흡하는 수'라 정의한다. 즉 사람의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호흡은 기(氣)의 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몸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바른 호흡법에 의해서 장단을 칠 줄 알아야 올바른 기운이 소통이 되고 이 기운에 의해 올바른 음악을 행할 수 있다. 장단을 위한 바른 호흡법이란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의 커다란 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원의 호흡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기(氣)명어리로 변화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장단을 익히고, 이런 장단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유의 음악어법을 터득하면 보다 쉽게 국악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전통적인 학습법 대신에 서양의 리듬보로 우리의 장단을 공부하면 본질을 간파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단에 숨어있는 기운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진모리' 장단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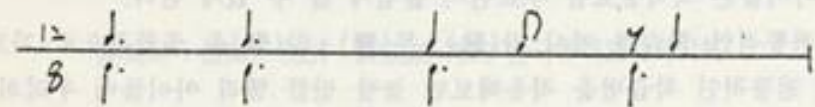
한호흡구간			한호흡구간			한호흡구간			한호흡구간		
덩			덩			덩	따	궁	따		

자진모리 한 장단을 칠 때는 위와 같이 4번 호흡 즉 4번 원을 그린다. 4번 원을 그리면서



위의 그림과 같이 원의 흐름에 장단을 얹으면 된다.

이것을 서양 악보로 기보하면 다음과 같다.



과연 이 서양악보만으로 우리의 장단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

위의 표기법으로 상대적인 깃가 즉 길고 짧음만 알 수 있지 담겨진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본질을 모르면 신명나게 국악 동요를 부를 수가 없으며 아이들 또한 우리 음악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

국악동요에 많이 사용되는 장단은 굿거리, 자진모리, 세마치, 동살풀이 등이다.

우선 먼저 이런 장단들에 대한 철저한 몸익힘(몸으로 장단을 익히고 체험하는 것)없이 제대로 국악동요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다.

2) 국악동요 교수방법

다음으로 국악동요를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아이들이 위의 장단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서 접하게 해준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

따라서 노래를 노래 자체로 가르치는 것보다 전통놀이, 전통 춤사위 등 다른 조건과 연관시켜 가르치는 방법 즉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자가 어린이들에게 국악동요를 가르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 본 '자진모리' 장단은 구름(입으로 장단을 학습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한호흡구간			한호흡구간			한호흡구간			한호흡구간		
덩			덩			덩	따	궁	따		

덩 덩 덩 따 궁 따
덩 덩 왔다 갔다
덩 덩 요 리 조 리
덩 덩 이 쪽 저 쪽

앞부분의 덩-덩-은 한 배(호흡의 속도)를 정해야 하니까 고정시키고 뒷부분을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넣어 변형시켜 주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또한 덩-덩-은 자신의 무릎을 치고 덩-따궁따-부분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주물러 준다거나 무릎을 번갈아 치는 등의 행위를 넣으면 즐겁게 덩-덩-덩-따궁따-의 장단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 이런 몸익힘이 되면 그 다음으로 자진모리장단으로 된 국악동요를 선택해서 가르쳐주고 여기에 소고의 동작이나 전통 춤사위의 동작을 응용해서 함께 가르친다. 그러면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동요와 춤을 한꺼번에 익히게 되고, 장단의 기운을 받아 아이들은 국악동요를 부르면서 즐겁게 놀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학습법 역시 가(歌)·무(舞)·악(樂)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런 전통적인 학습법을 적용해보면 놀랄 만큼 빨리 아이들이 우리의 장단에 맞추어 몸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아이들의 반응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며 그럴 때마다 '한국인의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떠올렸다.

3) 국악동요 응용

다음으로 기존에 나와있는 국악동요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국악동요는 크게 전래동요와 창작동요로 나눌 수 있다. 전래동요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장단과 음악어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전래동요를 가지고 전통놀이와 함께 즐겨 보는 것을 권한다. 그런 다음에 창작된 국악동요 중 장단의 기운과 우리의 음악어법을 담은 곡을 선택해서 위에서 말한 전통적인 학습법을 응용하면 보다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육영회에서 만든 전래동요 테이프에는 전래동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단이 소개되지 않아서 아쉽다. 참교육사에서 나온 창작 국악동요 테이프에는 호랑장군, 종달새, 연 등의 우수한 국악동요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국악동요 등이 있다. 한 곡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의 몸 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설픈 많은 곡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우수한 곡을 선택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3. 글을 마치며

유아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소연은 국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선생님들 자신이 국악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공과정에 국악에 관한 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국가의 교육정책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가장 근본이 되는 장단을 철저히 익히라는 것이다. 서양의 동요를 가르칠 때의 기본이 '피아노'이듯, 우리의 동요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장단악기를 사용해야 한다. 장단을 우선 철저히 익히면 이 장단의 기운을 바탕으로 한 국악동요와 춤은 쉽게 익힐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국악동요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이 언급되었다.

국악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교사를 위해 '한국유아교사국악회'를 소개한다. 한국유아교사국악회는 유아에게 맞는 국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매주 1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 02)401-5951 015)383-7570 한국유아교사국악회

일본보육연수기

일본 보육시설들을 돌아보고 나서(2)

위양자 / 본회 부회장, 해프는 동산

10월 30일 월요일.

오늘은 3차 보육소 연수날이다. 공립보육소에 강숙진, 신현희, 메그미 보육소에 박화명, 서은희, 그리고 김경아선생과 나는 에신보육소로 아침 일찍 출발했다.

공립보육소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공립보육소의 보모들도 보모자격을 갖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로, 우리나라의 국공립과는 달랐다. 보육내용은 대부분 설정보육(계획보육)을 중심으로 보모의 계획과 개입으로 하루일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수단 환영회에서 운동회때 준비한 여러가지 활동들을 반(연령별)별로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한국의 악기와 노래도 배워서 알고 있었다.

메그미보육소는 일본에 살고있는 소수민족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든 보육소로 외국인노동자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다. 다양한 얼굴과 피부색깔에도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다. 이곳 아이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알고 있었다.

에신보육소는 우리 연수단이 일본에 도착한 첫날 환영회에서 아침이슬을 불러 우리의 마음을 평하게 했던 김혜영 선생님이 원장으로 일하는 곳이다. 한국인이 원장이기 때문에 복지사무소에서 아이들을 조치할 때 한국인 2-3세의 아이들은 무조건 이곳으로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전체 120여명 아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 아이들이었다.

1978년 6월에 오사카교회를 지으면서 지역선교를 위해 지어진 에신보육소는 기독교 교육과 민족보육을 목적으로 보육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아이들도 매일 9시 30분이면 방송예배를 하는데 연령별로 구성된 각반에서 책상에 둘러앉아 원장의 선창으로 찬송을 부르고 인사말과 성구를 한국어로 말하며 신앙심과 한국어를 배운다.

이곳은 생육 6개월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6명의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 1·2차 보육소연수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보육(통합보육)을 하고 있었고



↑ 메그미보육소에서는 조각난 비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물망에 넣어 쓰고 있었다.

민족보육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 이름(본명) 찾기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한국인 2-3세라 한국인의 자궁심(!)도 미약하고 본명을 쓰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처음 입소시 면접을 하면서 보육소의 설립목적을 이야기하고 본명(한국이름)을 쓰도록 교양한다고 했다. 실제로 각 보육실의 개인 사물함에는 본명과 일본이름이 함께 붙어있고 아이들도 본명을 알고 있었다. 보육소에 아이를 보내면서, 본명을 뽀뽀하게 쓰는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도 점차 한국인임을 자각하고 아이들이 부르는 한국동요와 민요를 들으며 민족적인 자긍심을 키워간다고 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보모들도 대부분 한국이름이 있었는데 보모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때 학교에서 한국인 원장이 있는 보육소로 알선을 해준다고 했다. 처음엔 보모들도 한국인이란 생각이 없이 살아오다가 보육소에 와서 다른 보모들과의 교류와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서 점차 한국인임을 뽀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듯 연수생 환영회에서 한 보모가 자신의 이름이 '고전자'라고 소개하며 보육소 아이들이 본명을 쓰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이곳의 민족보육은 민족평등사상을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었다. 한 예로 소수의 일본아이들 문제로, 일본 아이들은 일본이름만 있고 본명은 없는 사실을 놓고 다수인 한국아이들이 소수인 일본아이를 놀려서 일본아이가 울게 된 일이 있었다. 이럴 때 원장과 보모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모들이 올바른 민족관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각자의 민족적 특성과 차이의 소중함, 평등함, 소수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된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평등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보육하고 있었다.

부모회를 구성하고 일본에서 여러가지로 힘든 부모들의 전문적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친숙한 보육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스스로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힘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모회에서는 풍물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강연회, 에어로빅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오후 휴식과 낮잠에 들어갈 시간에 김혜영 원장님과 Korea Town을 구경하

러 갔다.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에 걸 보기에겐 같아보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온 시기와 적응방법이 조금씩 다른 3종류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에 형성된 거리는 상인조합을 형성하고 일본인과 합작도 하는 방법으로 생활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두번째는 전쟁후에 잘 살기 위해 일본에 건너와 개별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며 모여 있었고, 세번째는 가장 먼저 형성

된 거리로 일제시대에 징용이나 밥벌이를 위해 건너온 한국인 1세대들이 터를 잡아 온 곳으로 역사적 기득권을 주장하며 가장 일본화되어 있었다.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음식(돼지고기 삶은 것, 순대, 떡, 국밥 등)과 반찬가게(김치, 찌릿조림, 오징어채조림, 오이소박이, 콩나물무침, 찹쌀떡 등), 화려한 한복점들이 눈에 띄었다. 김혜영원장님이 콩나물무침과 어리굴젓, 인절미를 사주셨는데 달짝지근한 일본맛이 배어있었다.

3차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들은 공립, 메그미, 에신보육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일본보육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우리 악기를 구입해놓고 배우는 곳, 목청 높여 한국동요를 부르는 아이들, 한국의 보육현실에 이것저것 관심있는 보모들, 일본인이 갖는 타고난 상냥함과 친절 때문인지 어느 곳에서도 내가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10월 31일, 동화 보육소 연수(보육연수 4차, 아스카보육소 연수)

오사카시 아스카지역에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백정들이 천민으로 차별받았던 것과 같은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었다. 지금도 차별민들은 여러 곳에 "부락"을 형성하고 모여 있는데 아스카지역도 그런 차별부락 중의 하나였다. 이곳 부락민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나 결혼을 할 때 부락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모여 산다고 한다.

이렇게 부락민들이 차별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게 된 것이, 통치자들이 민중분할을 통해 반목과 상대적 우월감을 조장하여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스카지역민들이 겪었던 차별이 일본의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부락에는 제주도를 고향으로 가진 한국인 2,3,4세대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

부락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인 만큼 부락민들의 차별에 대한 철폐의지도 강해서 부락해방운동이 왕성히 전개되었다고 한다. 우리들이 방문한 아스카보육소도 부락해방운동



↑ 에신의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

과정에서 설립한 보육소로, 차별철폐, 평등교육을 위해 세워졌다.

1966년 4월에 오사카 시립으로 보육소가 설립되었고 부모와 지역주민들로 보육회가 결성되어 보육교류회를 시작하여, 다른 지역의 보육소보다 좋은 시설환경과 많은 보모들을 요구했고 1972년 10월 현재장소로 이전하여 2-5세가 보육소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1978년 10월부터 지역주민의 보육요구에 의해 출생아부터 보육소를 이용하게 되었다. 1993년 3월 보육실을 전면 개정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학교를 연상케 하는 각종 시설(도서실, 조리실, 세탁실, 직원실, 회의실, 수영장, 운동장 등)과 충분한 보육실을 갖추고 있었고, 보모수도 영아반은 아동마다 3-5명에 보모가 3-5명씩, 4-5세반은 아동 10명에 보모가 2명씩으로 차별철폐 평등교육을 하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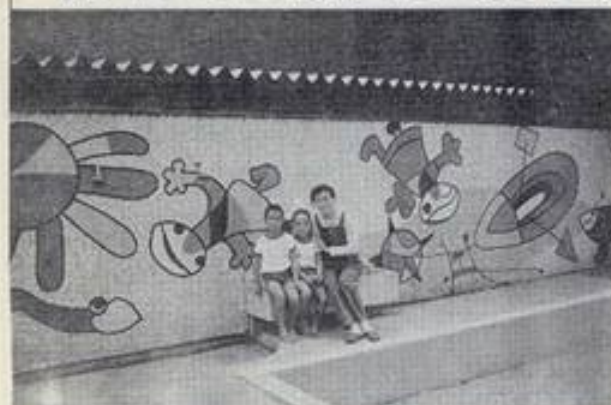
보육소의 하루생활은 9:00 등원·간식, 10:00 아침집회(모임), 여러가지 놀이 12:00 점심·낮잠, 여러가지 놀이, 3:00 간식, 4:00 집으로 귀가하며, 6시까지 연장보육을 하고 있었다.

보육소를 소개하는 작은 팸플렛에는 "보육소는 자연이 가득! 많은 나무들, 사계절마다 피어나는 여러가지 화초, 밭에는 야채재배. 하루 한번은 큰 친구에서부터 작은 친구까지 모두가 얼굴을 마주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모두 즐거워 할 수 있는 놀이를 해요"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넓은 운동장에서는 마음껏 몸을 움직여 모두와 함께 놀며 즐길 수 있고, 체육코너와 소꿉놀이 코너에서 놀이를 하기도 하며, 즐거운 보육소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주요행사로는 매달 그달에 태어난 친구들의 생일축하잔치와 요리실습, 운동회, 졸업식, 입소식 등이 있었고, 4-5세아들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모두가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청소도 직접 하며, 청소방법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보육소 환경은 1층엔 유아반이 운동장과 맞은 편에 배치되어 있고, 영아반은 교직원실을 지나 복도로 연결된 별도의 공간에 조용하고 안락하게 꾸며져 있었다. 영아반 보



↑ 아스카보육소의 수영장. 수영장 외벽의 그림이 멋있다.

육실에는 놀이공간과 낮잠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보모들이 우유곽을 이용해 만든 의자, 미끄럼틀, 말, 모빌, 소꿉집 등 여러가지 안전한 놀이감이 많았다. 2층엔 모든 아이들이 모여 놀이를 하는 커다란 강당이 있었다.

반은 연령별로 편성하고 하루에 한번씩 모두 모이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운동장놀이와 자연 속에서 배우는 활동을 중시하며, 갖가지 놀이를 통해 아이

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었다.

아스카보육소는 시립으로 보모들이 공무원 신분이며, 교재실과 회의실 등 보모들이 창조적인 놀이를 준비하고 교재, 교구, 놀이감을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와 작업실이 연수생들의 부러움을 샀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은 많고 교사는 1-2명이 하루하루 안전한 보육을 위해 애쓰지만 필요비용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수혜자 부담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하루 속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보육사업은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새시대 꿈나무들을 키우는 국가적 시책으로 자리잡아야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아스카보육소 원장님의 견해에 간절한 마음으로 동감했다.

아스카보육소를 둘러보고 해방회관에서 부락해방운동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했다. 부락해방운동의 역사와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보육소 설립이 주요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보육소로 돌아와 교사회의 중인 보모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원장님의 배웅을 받으며 숙소로 향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천황이 존재하는 시민사회와 차별부락이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며 놀라움과 모순을 느꼈다.

11월 1일 보육연수 5차, 남해 복지전문학교와 복지사무소

먼저, 우리들은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사업회가 설립한 남해복지 전문학교를 방문했다. 넓은 정원이 가운데 자리한 학교에는 부설 보육소가 있는 본관이 있고 2개의 강의실과 실습실이 있는 건물, 매점과 휴식공간이 있는 건물이 따로 있었다.

우리 연수생과 에타모토선생님(이 학교의 교수이고 성예원 원장), 김덕환선생님(한일보육교류회 대표, 성화원 원장)과 본관 건물 2층에 자리한 회의실로 안내되어 어린이집 선생님과 책임있는 몇분의 교수들로 부터 학교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해복지전문학교는 후생성 관할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2년과정을 거쳐 보육보모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관할의 양성교육기관과 유사했다.

일본에서 보육보모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 2년 과정을 마치는 것, 둘째는 단기대라고 불리는 전문대에서 2년의 과정을 마치는 것, 셋째는 4년제 대학에서 4년 과정을 전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기대나 4년제



↑ 아스카보육소의 환경구성

대학을 졸업하면 보육, 유아자격이 동시에 취득된다고 한다.

이 학교는 후생성 규정에 의거해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후생성 규정보다 단위수가 많았다. 한해에 보육과 140명, 사회복지과 80명, 복지개호과 40명을 모집하는데 보육과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기초과목 : 문학, 가정과 사회, 인간과 환경, 인권교육, 영어, 체육 등
- * 보육의 본질과 목적 이해 과목
- * 보육의 대상 이해과목
- * 보육의 내용, 방법 이해 과목
- * 기초 기능 : 기악, 청악, 보육체육, 공작 등
- * 실습
- * 특별교육과목 : 노인, 장애인 복지, 예술, 문화기술감각, 세미나 등

커리큘럼에도 나와있듯이, 남해복지전문학교에서는 인권교육을 하는 데 그것은 이 학교의 주요사항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이나 기능보다 "마음"이 있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람을 키우려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교장선생님은 강조했다.

보육과는 모집인원이 140명인데 1반에 35명 정원이고 10-15명씩 세미나라는 과목을 통해 연구활동도 한다.

또 우리나라의 양성교육기관과의 차이는 모든 교육내용이 "보육"이라는 관점으로 정리된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이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보육소 실습 3회, 시설실습 3회, 실습지도 2회로 기간과 횟수가 월등히 많았다. 우리나라는 1년과정인데 일본은 2년 과정이라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해복지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면접, 국어1,2, 시험과 적성검사를 치뤄 합격해야 했고 입학금이 225,000원(엔), 각과가 다르나 보육과는 수업료 590,000엔, 시설운영비는 255,000엔을 4월과 10월에 분납한다고 했다.

소개와 질의시간이 끝나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일본은 어딜가나 1회용 도시락을 즐겨 먹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부설 보육소와 강의실을 돌아보았다. 보육소는 본관 1층에 있었는데 영아부터 유아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한 유아반에 들어갔는데 마치 우리들이 국민학교 고학년 음악시간에 어찌다 경험한 기억이 있는 악기들을 5살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합주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화음에 박수를 보내며 강의실을 돌아보았다. 강의실은 이론을 주로 하는 곳이고 각 과에 필요한 실기를 할 수 있도록 실습실이 잘 갖춰져 있었다. 마침 핫케익을 만들고 있는 복지개호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남학생이 절반이상이었는데도 모양과 색깔은 가지각색이지만 열심히 반죽하고 겹겹이 탄 것은 다시 굽고 구운 것을 먹어보며 맛이 있는지 확인하며 즐겁게 실습을 하고 있었다.



↑ 아스카보육소를 둘러본 후 해방회관에서 부락철매운동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육과의 한 반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신체표현활동을 실습하고 있었다. 남학생이 절반정도로 여학생과 차이없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성애원, 성화원, 희망의 문 보육소에 남자보모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분위기의 연장 속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강의실을 둘러보고 우리 연수생은 서둘러 오사카시 서성구의 복지사무소로 갔다. 서성구청내에 복지사무소(복지과)는 복도로 연결된 별도의 건물에 있었는데 생활보호(계),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모자복지, 아동복지(보육소)를 관장하고 있었다. 우리 연수생들에게 설명과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분은 한국어를 잘했는데 이곳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8년전부터 배웠다며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다.

95년 9월을 기준으로 서성구의 인구는 127,000명이고 보육소는 23개소, 조치아는 1,940명이며 조치비는 1억 1,018만엔이었다. 복지사무소 직원중 2명이 이 일을 맡아하고 있었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조치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지방자치체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보육요구가 있을 때 일정한 "조치"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복지사무소의 주요업무는 보육소 입소신청의 수리(연중), 조치결정, 보육료 금액 결정, 조치비(급식비, 실무비)의 지급 등이고 아이양육에 대한 상담지도도 하고 있었다.

94년 Angel Plan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관건이 되어 표준보육 8:00-18:00 이외에 연장보육 7:30(아침) - 6:30(저녁), 영아보육, 장애아보육(조치이유가 있어도 보육소 입소 가능), 2주 이내의 일시보육, 밤10시까지의 야간보육 등을 적극 홍보, 추진하고 있었다. 현재 일본은 출산율이 적어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보육요구

는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받아내지 못하면 보육소 2개를 통폐합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육제도와와의 차이를 찾아보면, 입소신청을 각각의 보육소에 하지 않고 복지사무소에 하며 보육료도 (부모의 세급에 따라 2-5등급으로 나눔) 복지사무소에서 정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고부담금이 책정되고 자치체에서 조치비를 채워 보육소에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가를 받는 모든 보육소는 이런 과정을 거쳐 아동이 입소하고 조치비를 지원받는다고 했다(인가조건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복지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고 복지사무소 내부를 보았는데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10여개 마련되어 있어 서성구의 복지민원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 연수생을 환영하기 위해 오사카시청의 노조(공무원) 민생국장이 와서 오사카시청 견학을 제안하셨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눈앞에서 만나게 되니 오사카시청 견학까지 제안하는 것에 새삼 놀랐다.

전철을 타고 시청까지 걸어서 도착하니 어둠이 깔리고 네온등이 켜져 있었다. 오사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각 부서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퇴근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무언가 맡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오는 길에 기념사진도 찍고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우리는 일본에 온지 며칠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음식이 너무 먹기 힘들어 내심으론 불안했지만 친절을 거절할 수 없어 불고기를 먹겠다고 했더니 왜 일본음식을 먹어보지 여기까지 와서도 불고기를 먹으려하느냐며 농담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못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불고기집으로 향했다.

저녁식사에는 서성구 복지사무소에서 우리 일행에게 열심히 한국어로 얘기했던 직원과 오사카시청 여성노조원 한분 더 오셨다. 일본식 불고기를 먹으며, 한국어와 한국인에 대한 추억을 들었고, 우리 일행은 일본 보육소비스가 다양화하는 경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약간 먼 길이었는데 한국인들의 상점이 많은 거리를 지나 빠정교의 화려한 불빛을 받으며 걸어서 돌아왔다. 일본의 야경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새날을 여는 사람들

송학마을, 박재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강예란 / 편집부

"..... 2호선 신당역에서 내려, 성동고등학교 방향으로 나와서 조금 걸어올라오면 마을버스가 있어. 마을버스를 타고 송학마을에서 내려라. 거기 놀이터에서 한시 삼십분에 보자!"

"예. 그럼 내일 만나요, 언니."

다음날 송학마을을 찾아간 나는 [송학마을]은 동네 명칭이 아니라 이 지역 재개발 철거된 산동네 사람들이 투쟁으로 되찾아가는 삶의 보금자리 '가이주단지'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작업장, 송학놀이방, 행당배움터가 한눈에 보이고 정문 입구에 재활용수거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공동살림'을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예언니(편집부원)와 승필이(정예언니 아들)의 손목을 잡고 박재천 선생님택으로 향했다. "승필이 왔구나." "어서들 오세요." 선생님 내외분들의 따뜻한 환영이 정겨웠다 - 박재천 언니는 이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박재천 선생님 내외분과는 친하게 지낸다고 한다.

새콤달콤한 오미자차를 마시며 상견례를 한 후 [우리네 아이들] 취재차 왔다고 하니 "취재?"하며 웃으셨다.

충청도 청주가 고향이신 박재천 선생님은-지금도 부모님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한신대 재학중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이 된 후 학교에서 나와 딱히 어디 갈 곳이 없어 거처를 찾다가 방값 싸기로 소문난 '청계천 독방'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청년의 눈에 청계천 독방사람들의 삶은



↑ 단결의 상징, 하왕2-1세대위의 철탑. 주민들은 틈만 보면 힘이 솟는다고 한다.



↑ 세대위 현판식때 주민들에게 단합을 강조하는 박재천씨.

복음자리에서 선생님은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시절을 아낌없이, 정말이지 열심히 사신 듯 하다. 주로 지역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 실무를 맡아 일하시며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 열렬한 사랑끝에 결혼을 하셨다.

복음자리 마을이 안정기로 접어든 1987년에 이곳 행당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현재까지 살고 계신다.

"행당동으로 와서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지만 금호·행당·하왕지역 기획단에서 펴낸 '협동주민공동체실현을 위한 기획단 교육자료집 1.2'와 실제 삶의 현장, 그 일을 직접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지역사람들과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뵈고는 우리 삶의 자리 '지역'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곳곳하게 지키며 창조적으로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투쟁과 정책준비가 동시에 잘 배합되어 가이주단지생활까지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가이주단지에서의 생활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창조적 소수'가 2-3년 협동생활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임대주택의 미래는 그려집니다. 우리의 '지역 만들기'는 지역의 총체적인 문제(경제, 문화, 교육, 사회, 복지, 의료 등)를 주민들 스스로 자치관리하는 협동체계(경제협동·사회복지·생산협동·생활협동 주민공동체)로 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갈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산협동주민공동체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영역은 중요한데 아직 사회적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지역의 공동작업장은 아직 실험단계의 초보작업이고 한 사람이라도 고용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공부방과 예기방(오손도손예기방)이 활동해온 곳으로, 박재천 선생님은 아동·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산적해 있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었고, 가장 침체한 사안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주거권 확보' 투쟁을 통해 단련된 주민, 활동가들은 재개발로 인해 전면적으로 재편될 지역의 운동적 대안과 전망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박재천 선생님의 제안으로 학습과 토론에 들어갔다.

3-4년후 거대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소비형태가 변화될 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옥 고립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오직 개별화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과 체계 마련을 위해 '금호·행당·하왕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획단'은 발족되었다. 주민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지역전체 나아가 '성동구'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작은 발걸음을 댄 것이다.

박재천 선생님과 송학마을 주민대표, 두분이 기획단 공동운영위원회를 맡고 주민과 활동가들은 자신의 전망에 따라 다양한 분과에 소속해 각각의 모임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공부방 선생님들이 주축이 된 사회복지공동체분과는 지역의 제반 복지운동 전개와 임대주택 안에 세워질 '사회복지관'에 들어갈 전망을 가지고 있고, 경제협동공동체분과는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경제력을 높여가며, 생활협동공동체분과는 말 그대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건강한 먹거리등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지니고 있다.

더없이 이상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가이주단지'를 쟁취하면서 이미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헌신적인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기에.....

선생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였기에 우리는 그만 일어서기로 하였다.

참, 올 봄에 이 지역의 지역활동가와 주민지도자 몇분은 일본의 '지역만들기' 모범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러 가기 위해 일본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빈곤과 주거운동'을 자료집으로 공부하는 중이다.

철거촌에 출현한 산타.

↓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했다.

'올바른 사람이 되자'는 선생님댁 가훈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우리는 함께 작별인사를 나눴다.

뒤에 들은 얘기인데 박재천씨가 이 지역과 빈민진영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이유는 선생님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신 점도 있지만 부인의 내조가 큰 덕이라나.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며.....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하나. 둘. 셋 식구들에게 희망으로 피어납니다!!!

지난 1월 27일(토) 오후 2시.

하나. 둘. 셋 식구들이 바깥나들이를 간 사이, 옆에 있던 스웨터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나 하나. 둘. 셋의 귀중한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분의 도움으로 얻은 작은 공간과 어린이사랑방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지낼 공간은 임시로 해결되었지만 아이들이 갖고 놀 것이 하나도 없는데다,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서 걱정이랍니다.

미아1동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보육활동을 해온 하나. 둘. 셋.

여러분이 작은 도움을 하나 둘 모아주신다면 하나. 둘. 셋 식구들도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희망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을 예전모습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탁연 식구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의 끊임없는 도움을 기다립니다.

♥ 도움주실 내용 ♥

☞ 금액후원 - 아래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예금계좌	기업 005-13-0408-8045	태재원
	제일 252-20-340887	태재원
	국민 027-21-0392-929	태재원
	조흥 980-06-021617	강은형
	농협 092-02-213984	강은형

☞ 물품후원 - 놀이감, 그림책, 먹거리, 침구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기타 문의를 하실 분은

어린이사랑방(02-989-4524)이나 지역사회복지아소연합회(02-275-85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획

쉽게 배우는 사진·비디오교실(4)

김태일 / [푸른영상] 연출가

자 그럼 좋은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촬영할 때 필요한 것을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일단 기본을 갖추신 것이라 믿고 현장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가지 엄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영상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둘째 구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셋째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기본적(아주 중요)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지요.

첫번째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정적인 영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들(사진, 비디오)을 자신의 몸에 밀착시켜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더라도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은 셔터스피드를 통해 어느 정도 흔들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디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흔들리는 화면은 쓰지 않습니다. 촬영할 때 촬영자는 촬영위치를 설정하여 삼각대(트라이 포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어깨에 걸고 찍을 때 비디오를 자신의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호흡으로 인한 흔들림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둘째의 경우 초보자들이 범하기 쉬운 예입니다. 보통 여행에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사진안에 인물을 어정쩡한 위치에 놓거나 아래부분을 너무 짧리게 찍어 이상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촬영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즉 인물을 사진의 중앙에 둘 것인가, 인물의 전체를 보여줄 것인가, 얼굴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고서 촬영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촬영자가 지금까지 배운 경험을 토대로 접근하면 쉬운데 중학생이면 누구나 미술시간에 해보는 구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안정적인 삼각형구도, 사선구도, 동적인 원형구도 등 이것을 사진에 적용하면 대체적으로 정확한 구도를 잡을 수 있

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초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초점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만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좋은 사진이나 좋은 영상의 기본은 초점이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 촬영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세가지 사항을 머리속에 엄두해 두고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안정된 화면, 정확한 초점, 구도의 표현력은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가지고 야외에서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한다고 가정할 때 한부로 움직여서 안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예가 바로 가능한 모든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한다고 줄레바를 아무 생각없이 작동하는데 이럴 때 차라리 가만히 서서 녹화만 한다 해도 좋은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조금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한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멋있게 촬영하기 보다는 대상을 잘 담으려고 하십시오. 모든 일은 겸손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는 것도 다시 곱씹어 보며 촬영할 때도 세가지를 엄두해두고 현장에서 촬영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사진, 영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 카메라를 손으로 안정되게 잡으려면, 발을 벌리고 카메라를 살짝 얼굴에 붙인다. 숨을 멈추고 부드럽게 셔터 릴리즈를 누른다.
2. 카메라를 수직으로 뿔을 경우, 오른손은 카메라를 잡고 셔터를 누르고, 왼손은 초점을 맞추고 카메라를 안정되게 잡는다.
3. 무릎을 꿇었을 경우, 한 발을 구부려서 팔꿈치를 무릎에 받친다. 벽이나 다른 물체에 기대면 몸을 더 안정되게 가눌 수 있다.
4. 긴 초점거리의 렌즈를 사용할 경우, 한 손으로 렌즈의 무게를 받치도록 한다. 카메라 끈을 손목에 감으면 카메라를 안정되게 잡게 되어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준다.
5. 삼각대와 세이플 릴리즈는 가장 안정되게 지지해 주며, 선명한 이미지를 원할 경우 필수적이다.

딱아소별곡

채송화어린이집 이야기

이야기 하나 - 안 담은 곳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시간, 유라가 선생님과 함께 엄마를 기다리며 유아정보를 보고 있었다. 광고사진에 나온 외국 아이들 중 한명을 가리키며

유 라 : 애, 재준이 닮았다.

선생님 : 그대, 정말 닮았네.

유 라 : 그런데 재준이는 대머니 안팍았죠?

(사진 속의 아이가 이마가 많이 넓었다)



이야기 두들 - 선생님 외로워요!!

점심식사 후 이 닦고, 모두 다 잠잘 준비를 하러 들어가고 몇명은 벌써 꿈나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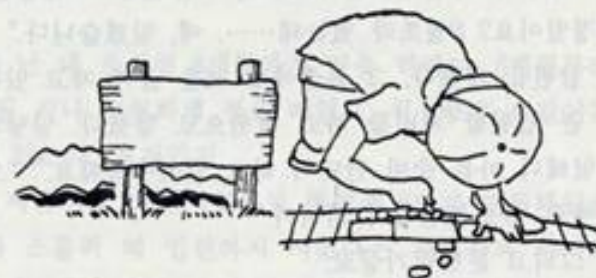
놀이실에서 늦게까지 놀던 경태에게,

선생님 : 경태아, 이제 자자.

경 태 : 놓면 것 치우고요.

선생님 : 그래, 경태가 놓면 것 치우고 자자.

경 태 : (다 치우고 나더니) 아휴, 피곤해. 이제 툴다. 선생님 킬로워요!!!



이야기 셋 - 내 똥(?)은 내가 안다?!

'쉬'를 잘 가리다가 가끔씩 실수하는 진이, 바지를 내리고 있어 '쉬'하려나 보다 하고 변기에 데리고 가는데 다리를 손으로 치며 "떼찌 떼찌"한다.

왜 그러나 변기에 가서 바지를 만져보니, 바지에 '쉬'를 해놓고 엄치(?) 없으니까 "떼찌 떼찌 떼찌"(기린반 선생님이 '쉬'하면 '떼찌'한다고 하셨단다)

육아일기

육아일기를 시작하며

박정애 / 편집부, 승필이 엄마

유난히 덥던 1995년!

7월 26일 새벽6시경 따뜻한 물같은 것*이 흐르는 느낌이었다. '양수가 터졌다' 잠결에 누군가가 외치고 있었다. 헐레벌떡 일어나 확인한 후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예, 조금전예요. 며칠전 정기검진때 아직 멀었다고 했거든요. 예정일이요? 8월초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남편을 깨웠다. 그 와중에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이 야속한 남자여!!

곧 입원할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담당의사 왈, "쫓쫓 양수가 터졌네. 시간이 걸릴테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입원수속해요." "오래 걸리나요?" "다른 사람 배로 걸릴 거예요. 유도분만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만대기실로.

정확히 23시간 50분을 난 지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했다. 두렵고 무서웠다. 남편이 보고 싶었다. 남편이 그토록 그리운 적은 처음이었다. 남편 얼굴 한번이라도 보면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싶었지만.....

저녁 10시경 산모들의 안정을 위해 가족면회가 되어 드디어 감격스런 부부상봉을 하였고, 난 잘해낼 수 있을거라는 남편의 격려에 조금의 안정을 찾을 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의 진통이 심해졌다 - 나는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난 인간이 낼 수 있는 고통의 소리란 소리는 다 뱉어내며 허리를 꼬집고 때리고 비틀어댔다. 수많은 여자들이 들어와 2-3시간 동안 소리를 뻥뻥 지르더니 분만실로 향했고, 나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초조에 떨며 간호사, 수련의에게 내 불안을 호소했다. "나는 언제 애기 낳아요?" "산모! 산모는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 가만 있어요." 분만대기실의 간호사들은 괴물(!) 같았다.

어느 한 산모가 너무 아프니 수술해달라고 말했다가 의사에게 호되고 혼만 났다. 솔직히 나도 수술해달라 말하고 싶은 심정 굴뚝같았지만.....

나는 정말이지 죽고 싶었다. 아이 낳는 것이 이렇게 아픈거라니. 다른 여자들은 쑥쑥

잘도 낳은 것 같았는데..... 빨리 시간이 지나 이 지옥같은 분만대기실에서 나가고 싶었고, 아이고 뭐고 정나미가 떨어졌다.

드디어 때가 온 듯 여기 좀 와달라고 소리를 꽤 질러댔다. 이동침대에 싣혀 분만실행. 난 있는 힘을 다해 두차례 발악을 한 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들이네요." 희미한 간호사의 소리. 아들이고 뭐고 난 '이젠 끝났구나'하는 안도감뿐. 2시간을 자고 깨어난 나는 엉엉 울었다.

"산모 왜 울어요?" "우리 애기 괜찮아요?" "왜요? 누가 뭐라 그래요?" 여전히 쌀쌀맞은 간호사.

'우리 애기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난 말야' 마음속의 외침뿐.....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울고, 여자의 삶이 안되서 울고, 무사히 제대로 된 아이를 낳아서 울었다. 정말 많이도 울었다. 이렇게 나의 첫아이 출산 대장정은 막을 내렸다. 지금도 우리 부부는 승필이 태어나기 이틀전 감상한 영화 [스피드] 덕분에 우리 승필이가 빨리 태어났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

배에 품고 있을 때가 편하다는 말을 실감하며 18개월동안 우리 승필이를 키웠다. 시댁, 친정 양쪽 모두 첫아이였고 낯을 가리지 않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승필이는 행복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

내 젖이 묶어 승필이 변이 질었지만 난 내 소신껏 8개월까지 젖을 먹였다. 6개월부터 젖과 분유, 이유식을 함께 한 덕에 8개월 지나 수월하게 젖을 떼었고, 식성좋은 승필이는 잘 먹는 것 같은데 살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체질인지.

승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시련은 지난 5월,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6일간 입원해있을 때였다. 둘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내가 소홀히 해 입원까지 시켰다는 자책감과 아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내심 너무도 불안했다. 다행히 무난한 편인 승필이는 퇴원후 곧 안정을 찾았고 그전 모습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본 나는 아이를 다시 얻은 듯 했다. 그 시련을 뚫고 승필이는 순탄한 길을 걷고 있다.

건강상태, 정서, 식습관 등 모두 좋다고 엄마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승필이가 자랄수록 자신이 없어진다. 자아가 발달하면서 욕심, 고집이 늘어나 점점 힘들다.

아이 키우는 여자들은 하루종일 아이 얘기밖에 없다. 그러나 그 아이 키우는 애길 글로 쓰라 하면 옆에 아홉은 고개를 흔든다. 처음엔 육아일기를 쓰는 등의 시도도 해보지만 곧 중단해버리기 일쑤고, 나 또한 그랬으니까.

편집부의 요청과 나 자신도 승필이를 키우며 일어나는 너무 가까운 애길 지막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자는 생각에 '육아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글솜씨 없는 나로서는 무리겠지만,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과 나 스스로를 정리하며 사는 습관을 다시 찾을 수 있어 한번 도전해본다.

자! 기대하시라.

다음호부터 여러분은 우리 승필이의 사랑스런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통신이야기

BABY 이야기(1)

서정은 /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BABY는 우리 연구소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보육종합 정보인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의 천리안내의 인덱스명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린이집이나 어느 인형극단의 주소 등 보육사업에 관련한 조그만 정보를 알고자 하였을 때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면 천리안으로 전화를 걸어(물론 컴퓨터로) 자신의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안내에 따라 넣은 후, 정보를 선택할 때 여기저기 기웃기웃할 필요없이 GO BABY하면 된다. 이렇기에 흔히들 인덱스명은 go명령어라 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정보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호부터 우리 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알려주고자 하며 정보개발과 운영의 과정에서 겪은 많은 사연과 에피소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보육운동에 있어 또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천리안에 제공된 BABY, 즉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 메뉴중 요사이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무엇인가? 물론 '구인/구직/자원봉사자'란이다. 대부분의 양성교육기관의 교육생들이 수료하여 취업의 문의를 해오고 시설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구하기 때문이다.

'에 볼 사람 구함'하고 개인이나 단체, 시설에서 선생을 구하기도 하고, '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하며 취업을 희망하기도 한다. 더러 장애아동 치료를 위해 자원봉사한다는 글도 있으며 유치원교사를 예인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짓궂은 글도 올라온다.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구소로 직접 신청을 하기도 한다.

며칠전, 늦은 시간에 온 한통의 전화.

"여보세요? 뭐 좀 여쭙 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싶어서 양성교육과정을 받고자 하는데……, 대학교 부설 양성교육기관과 민간에서 하는 양성교육기관의 과

정이 차이가 나는지요?"

"무슨 말씀인지……."

"옆에서 그러는데, 대학교 부설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보수도 좋고 대우도 좀 다르다 해서요. 건너건너 듣기도 하고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듣기도 했어요."

"취업이 잘 된다는 이야긴지요?"

"그것도 그렇고……, 대우가 좀 좋다고 해서요. 원장들이 그런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해서……."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요?"

"대학교 부설 양성교육기관의 교육받은 것과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 하고, 만일 대학교 부설 양성교육기관의 교육생과 그렇지 않은 곳의 교육생이 차이가 난다면 대학교 쪽의 양성교육기관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대학교쪽 양성교육기관에 접수하려고 문의했더니 벌써 인원이 다 찼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1년후에 다시 접수할까 하는데……."

대입 제수도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하려고 1년씩이나 기다렸다가 대학교 부설 양성교육과정을 밟겠다는 예비선생님의 전화는 무척이나 간절했다.

한 사람이 교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게다가 자격을 취득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닌 그 발걸음도 느껴지고, 알아본 끝에 양성교육기관의 레벨에 막힌 모양이다. 그 누가 그리 부지런했는지, 대학교 부설 양성교육과정의 정원은 이미 차서 이 예비선생은 또 막막한게다. 어찌 알았는가 했더니 누가 알려주더란다. 해서 우리 연구소에 문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인가.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도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이 나오는 것을, 그 수료증에 대학교 마크가 있다 해서 나는 차이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도전개편'인 것을…….

그러거나 말거나 보건복지부는 년 6천명이상 양성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교육생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연계하는 기관이나 정책배려도 없고, 그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인정이나 경력인정에 있어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연구소에 접수되는 예비교사들의 희망이 '국공립보육시설'에 취업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민간쪽 보다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연구소에 교사를 구하려 접수하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원장들의 목소리와 상반되는 예비교사들의 희망을 본다. 그렇기에 민간어린이집, 놀이방에서 교사로 일해볼 것을 권하면서 매우 곤란함을 느낀다. 교육기간 중 구분지어 추천되는 시설이 민간보다 국공립이기에 교육을 수료한 후 국공립보육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성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과 양성교육기관 수료생의 수요와 공급은 시설수와 수료생의 수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공립보육교사시설은 유아교육관련학과 졸업생을 원하는 등 맞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양기있는 자비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J.M.바스콘셀로스

제8장 늙어가는 나무들

아직 밤이 되기 전이었다.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떠돌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평화의 기운이 우리 집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식구들 앞에서 나를 무릎 위에 앉혀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의자를 흔드셨다.

- 다 잊었지, 예야? 다 잊게 돼. 너도 어느 날엔가 아버지가 될 게다. 그러면 어른이 되는 순간엔 너무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화만 나고 자포자기에 빠질 때가 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빠 [성.알레이슈]공장의 지배인이 됐어요. 이젠 절대로 크리스마스에 네 신발이 비어 있게 하지 않으마.

아버지는 잠깐 말씀을 멈추셨다. 아마 그 분도 살아있는 한 그 일을 잊지 않으실 게 틀림없었다.

- 우리 여행도 많이 하자. 얼마 더 이상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누나도 그래. 너 아직 그 메달을 갖고 있지?

나는 주머니를 뒤져 메달을 찾아냈다.

- 좋아. 네게 새 시계를 사 주마. 메달을 달 수 있도록 해 줄게. 어느 날엔가 네 것이 될 게다.

'쁘르뚜가, 당신은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계속 얘기하셨다. 그러시면서 내 얼굴에 덥수룩한 그의 수염을 갖다 대셨다. 너무 오래 입이 사쓰에서 냄새가 났다. 그래서 나는 몸을 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에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와 부엌문으로 갔다. 그리고 계단에 앉아 불이 꺼진 뒷뜰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 다시 분노가 일지는 않았으나 약간 마음이 언짢았다. '저 사람은 뭇 때문에 날 무릎에 앉혔을까? 그는 내 아버지가 아냐. 내 아버진 돌아가셨어. 망가라치바가 그를 죽였어.'

아버지는 날 쫓아오셨다.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이 솟은 것을 보시고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 울지 마라, 아가. 우리는 큰 집을 살 거야. 진짜 강이 뒤에 흐르고 있단다. 큰 나무들도 많이 있어. 그건 전부 네 것이 될 게야. 거기다 치장도 해줄 수 있지 않니?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나무도 내 생애 있어 [라이나·까르롯따]만큼 멋있는 나무는 없는 것이다.

- 제일 처음 고르는 사람도 네가 되는 거야.

나는 그의 발을 내려다 보았다. 나막신에서 발가락들이 빠져나와 있었다. 그도 칙칙한 덩쿨들을 가지고 있는 늙은 나무였던 것이었다. 아빠 나무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내겐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나무였던 것이다.

- 이 다음에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내 라임오렌지 나무도 그렇게 빨리 잘리진 않을 거야. 그게 잘렸을 때는 넌 멀리 있어 느낄 수도 없게 돼.

나는 그의 무릎을 잡고 흐느꼈다.

- 필요없어요, 아빠. 소용없어요.

그리고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며 슬프게 속삭였다.

- 전 이미 잘랐어요, 아빠. 내 라임오렌지나무를 자른지 일주일도 훨씬 지났어요.

제9장 마지막 이야기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로서 저는 마흔 여덟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 가운데서도 때론 어린 시절이 계속 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제게 딱지와 구슬을 주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뽀르뚜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분도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요즘도 전 가끔 딱지와 구슬을 나누어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별로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의 사랑에 만족합니다.

그 시절, 우리들의 그 시절엔 저는 물랐습니다. 먼 옛날 깨끗한 마음의 어린 왕자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계단 앞에 엎드린 채 환상의 세계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가, 저도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히!

우바뚜바에서.
1967년.

보육계동향

● 어린이집 현장연구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에서는 보육분야의 전문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현장연구를 공모한다.

연구과제 : 어린이집 현장연구

공모대상 : 전국 어린이집

연구기간 : 1996.3.1~11.30(8개월간)

연구계획서 접수기간 : 1996.2.7~2.12(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명기바람.

지원연구비 : 편당 500만원

연구계획서 구성내용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 연구방법(연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16층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우편번호 100-716)

문의전화 : 02-259-7873~6

● 방과후 아동지도자 교육

여성신문교육문화원에서는 4개월과정으로 아동심리, 미술지도, 독서 및 글짓기, 논술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자 교육]을 매주 금·토요일에 실시한다. 문의 512-3301~3

● 아동극 안내

마술피리	3월3일까지	바탕골소극장	낮12시30분, 오후2시(월 열)	745-0745
국악 출극 깨비 깨비 도깨비	3월3일까지	두레문화예술관	오전11시30분, 오후2시(월 열)	765-1871
마당놀이 토끼전	2월 29일까지	오색극장	오전11시(단체), 오후2시, 3시, 토.일 오후 2시, 3시, 4시	985-5871
하이드	3월 3일까지	샘터파랑새극장	오전11시(단체), 낮12시30분, 오후2시.	763-8969

● 자녀의 생활습관, 양육법 비디오로 소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거리를 풀어 줄 비디오 [자녀의 생활습관]을 제작하였다.

30분짜리 이 비디오는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의 양육방법과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지도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여비용 2천원, 판매 1만원, 문의 02-356-0070(교518)

● 가족인형제작 · 보급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구용으로 [가족인형]을 제작 · 보급한다.

1세트에 5만4백90원, 문의 02-259-7889

● 한국치료 레크리에이션 개별요구충족 서비스 실시

사당동지점 한국치료 레크리에이션협회는 1월 12일부터(매주 금요일) 정신지체, 자폐, 뇌성마비 등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손상된 기능을 연구, 개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문의 525-5596, 522-9763

● 서울시외회 도서관 시민에 개방

서울시외회 도서관에 시민들에게 개방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의사당내 지하 1층에 40여평 규모로 지난 92년 문을 연 도서관은 정기간행물을 비롯 의정관련 전문서적 8천500여권을 구비하고 있다. 열람석도 10여개 갖추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 문의 725-0616

● '96년도 보육수첩 보급안내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는 보육아동의 일일 보육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는 보육수첩을 개발, 전국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보급하고 있다. 권당 판매가 1,050원.

문 의 : 사단법인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전화 (02) 706-0966, 701-0356, 704-0356 팩스 (02)704-8163

개별주문 : 우편, 전화, 팩스로 주문신청

단체주문 : 각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지회를 통해 일괄 주문신청 바람

● 서울민보련 보육일지 제작 판매

서울시민보련(회장 박정혜)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아동관찰과 교사의 활동일지를 곁할 수 있는 [보육일지]를 제작하여 권당 7,000원에 배포하고 있다.

보육일지 구입을 희망자는 서울시 민보련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2-796-1096

● 판소리-대금 무료특강

전통민속예술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5시 예술원 강당에서 판소리 무료특강을 실시한다. 매주 월, 수 오후6시에는 대금 무료특강을 한다. 문의 02-418-0248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자원봉사자 모집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 및 고발을 위한 1백만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문의 02-720-1848

● '머사랑' 제22회 국토문화순례

주 재 : 남원 실상사와 순창 인실 고창지방의 남근석 문화 발자취

일 시 : 2월 10-11일

강 사 : 역사탐방연구회 이세용 회장

참가비 : 4만원(상업은행 113-08-328361 전속회)

문 의 : 02-725-1284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강서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부터 55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 매주 월-금 오전 10-오후 5시까지 상담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증명사진 각 1장.

문의 02-668-0600

● 민족생활문화연구소 오비웃사업단 질경이 '96 설빔 선보이기

일시 : 2월 5일 - 18일까지

시간 : 오전 10:00-오후 8:00

장소 : 질경이 우리웃 전시장(성대 입구)

문의 02)744-5606, 762-3202

● 무상 소거애가는 재활용센터

서울시 각구청에서는 낡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등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 수리한 후 저렴하게 판매,교환해주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센터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나와 무상으로 수거해간다. 현재 18개 구청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했고 나머지 구청도 추진중에 있다.

구명	소 재 지	연락처
성동구	금호사거리에서 강변대로 진입로 입구	298-8272
광진구	천호사거리 국제약품 우측 10m	450-1609
동대문구	장안4동, 배봉사거리 LG전자 건너	243-7282
종로구	종로구청 옆, 두산아파트 101동 옆	435-7272
성북구	안암동사거리 크라운제과 옆	922-1160
강북구	26-1번버스 종점, 번동천주교 성당 옆	987-8272
도봉구	쌍문2동 북부농협 옆길 200m안쪽	902-8272
노원구	하계동 자동차 북부검사소 후문 맞은편	974-8272
은평구	수색동, 146번 버스 종점	374-5333
서대문구	홍은3동, 기업은행 홍은지점 뒤 200m	394-8272
양천구	오목교사거리에서 목동운동장 방향 50m우측	651-2582
금천구	시흥1동사무소내	896-7272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후문 한일전기 빌딩 골목안 50m	671-7289
관악구	신림동 복개천 주차장	889-9449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건너 우성웨딩샵 좌측 안쪽 100m	571-727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사거리에서 잠실올림픽대교쪽 50m 우측	501-7157
송파구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	410-3728
강동구	상일동 한영고등학교 옆	426-7282

△식과 △식

보건복지부 '96년도 시책방향 발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5년 12월 15일 중앙보육위원회를 통해 '96년도 보육시책방향을 밝혔다.

이 보육시책에 의하면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연리인하등을 통한 시설화충과 함께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육아협동조합식 시설에 대한 지원등을 밝히고 있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선보였다.

보육시책은 이번에 배포된 '96년 보육사업 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으로는 남미영 전부회장, 부회장으로는 위양자(군산), 임남희(안산) 두분이 수고하시게 된다.

한편 최현숙 전회장은 회원들의 선물과 꽃다발을 받으며, 다시 평회원으로 열심히 함께 할 것을 밝혔다.



본회, [유아정보]지에 교육계획안 제공

본 연합회 교육연구부가 월간유아잡지 [유아정보]지와 계약을 맺고 [유아정보]지에 교육계획안을 구성, 집필하게 되었다.

교육연구부에서는 교육계획안팀을 구성하여 현재 교육계획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유아정보] 2월호부터 3월 교육계획안이 교육연구부의 내용으로 소개된다.

'96년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 신입임원단 구성-

지난 1월 3-4일, 2박3일간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본 연합회 겨울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있었다.

수련회에서는 교사조직으로 가기 위한 강연과 발제, 소모임 강화를 위한 지원강좌(영아/국악/그림책/자연), 교사건강 관리 위한 요가 배우기와 일본보육연수 보고대회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교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놀이가 흥겹게 진행되었다.

한편 1월 4일 진행된 제11회 정기총회에서는 신입임원단을 선출하였는데 신입

사람들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년동안 본회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최현숙님이 임기마감으로 활동을 그만 두십니다. 최현숙님은 올해부터 카톨릭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실 계획입니다.

또한 연합회 교육부장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오던 오윤정님이 교육부장직을 사임하고 교육연구부내 교육계획안팀 간사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동안 지탁연을 위해 활동해오신 두분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이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전하였습니다.

이리 정다운어린이집과 인천 세쌍둥이 어린이집이 보다 넓고 좋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보다 많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 바랍니다.

* 축하해주세요.

- 연합회 사무국장 신현희씨가 1월 14일(일) 오후 1시 홍사단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 금천구 새터어린이집 전직교사이신 전미경씨가 2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 부평 산곡동 신용협동조합에서 화축을 밝히십니다.

- 군산지역 해프는 동산어린이집의 조미경선생님이 3월1일(금) 12시30분에 광주 산정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새분의 새신부들에게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밝은 가정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1월 일지

95년

12/27 연합회 재정감사

28 총회준비위 3차 모임

30 편집회의

96년

1/ 3-5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9 집행회의

10 여성단체연합 총회준비위

교육연구부 교육계획안팀

20 편집회의

22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대표자회의

23 서울시 민보련 총회 참가

(남미영 회장)

24 서울경인지역 평교사분과회의

정무(2)장관실 정책설명회

(남미영 회장)

25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26 3.8세계여성대회 실무회의

29 교육연구부 교육계획안팀 모임

확대집행회의

31 교육연구부 교육계획안팀 모임

편집부에서

* 이번호는 쉽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독일탐방기]가 필자의 사정으로 실지 못했습니다.

3월호에 다시 이어서 기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독일탐방기] 많은 기대 바랍니다.

* 필진이 바뀝니다.

[건강하게 살시다]를 집필해주시던 이흥진(춘천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선생님과 김철환(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선생님이 당분간 휴식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흥진선생님은 1월 27일자로 1년간 연수과정으로 미국에 가셨습니다.

두 선생님을 대신해 [건강하게 살시다]는 한문건강교육원의 김진명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네 아이들]을 위해 집필해주신 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집필을 맡으신 김진명선생님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선생님께서 3월호부터 집필하시게 됩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내주시십시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림, 이해영님. 자료회비를 입금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질 않네요. 연합회로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32살의 첫달은 빠른 것인가.

육아일기에 취재에 관해서 마음만 바쁜 한달이었다. 멋진 히트곡만들어야 하는데... - 정애

하얀 눈을 밟고 타서 호-(주위서) 편집추거를 쓴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 기쁘다. - 애란

이번달은 정말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였는지 새해 각오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지나갔다.

다음달은 계획을 강을 수 있을까? - 미혜

사람들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년동안 본회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최현숙님이 임기마감으로 활동을 그만 두십니다. 최현숙님은 올해부터 카톨릭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실 계획입니다.

또한 연합회 교육부장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오던 오윤정님이 교육부장직을 사임하고 교육연구부내 교육계획안팀 간사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동안 지탁연을 위해 활동해오신 두분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이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진하였습니다.

이리 정다운어린이집과 인천 세쌍둥이 어린이집이 보다 넓고 좋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보다 많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 바랍니다.

* 축하해주세요.

- 연합회 사무국장 신현희씨가 1월 14일(일) 오후 1시 홍사단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 금천구 새터어린이집 전직교사이신 전미경씨가 2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 부평 산곡동 신용협동조합에서 화촉을 밝히십니다.

- 군산지역 해프는 동산어린이집의 조미경선생님이 3월1일(금) 12시30분에 광주 산정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세분의 새신부들에게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밝은 가정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1월 일지

95년

12/27 연합회 재정감사

28 총회준비위 3차 모임

30 편집회의

96년

1/ 3-5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

9 집행회의

10 여성단체연합 총회준비위

교육연구부 교육계획안팀

20 편집회의

22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대표자회의

23 서울시 민보련 총회 참가

(남미영 회장)

24 서울경인지역 평교사분과회의

정무(2)장관실 정책설명회

(남미영 회장)

25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26 3.8세계여성대회 실무회의

29 교육연구부 교육계획안팀 모임

확대집행회의

31 교육연구부 교육계획안팀 모임

편집부에서

* 이번호는 쉽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독일탐방기]가 필자의 사정으로 실지 못했습니다.

3월호에 다시 이어서 게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독일탐방기] 많은 기대 바랍니다.

* 필진이 바뀝니다.

[건강하게 삽시다]를 집필해주시던 이흥진(춘천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선생님과 김철환(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선생님이 당분간 휴식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흥진선생님은 1월 27일자로 1년간 연수과정으로 미국에 가셨습니다.

두 선생님을 대신해 [건강하게 삽시다]는 한문건강교육원의 김신명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네 아이들]을 위해 집필해주신 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집필을 맡으신 김신명선생님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명선생님께서 3월호부터 집필하시게 됩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내주시시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림, 이해영님, 자료회비를 입금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질 않네요. 연합회로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32살의 첫달은 빠른 것인가.

육아일기에 취재에 관하여 마음만 바쁜 한달이었다. 멋진 히트곡만들어야 할텐데... - 정애

하얀 눈을 밟고 나서 호-(추워서) 편집후기를 쓴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 기쁘다. - 애란

이번달은 정말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였는지 새해 각오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지나갔다.

다음달은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 - 미혜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새해에는.....

“까지 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새해가 밝았고 우리네 설날도 머잖았다.

다가오는 하루하루는 결코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건만 오늘도 어제인듯 그렇게 무심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던가. 새삼 설날 아침 설빔 입는 설레임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흥도 내고 기운도 추스려서 새해 계획을 세워본다. 저마다 나름대로 바램이야 많겠지만, 우리 모두의 소망 중 작은 것 하나는 우리의 힘을 모아 이루었으면 좋겠다.

어느 가수의 노래가 떠오른다.

“Heaven for everyone”

서로가 무관심하게 서로를 냉정하게 서로를 가슴 아프게 상처내는 세상.

그러나 당신만 내 곁에 와준다면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텐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이 세상은 우리 모두의 천국이 될 수 있을텐데

이 세상이 바로 우리 모두의 천국이어야 하는데

“This world could be heaven for everyone.”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닐까.

아이들이 디이상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이 되지 않도록.....

그날도 아빠는 몹시 취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누가 그를 화나게 했는지, 무엇이 그리 원통한지. 험상궂은 얼굴로 보이는 것은 다 발로 차고 부수면서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그 덕분에 예긔은 입마는 눈이 시퍼래지도록 매를 맞고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에이, x x x” 아빠는 그래도 분풀이가 안 됐는지 다시 대문을 걸어차고 나갔다. 밖에는 아까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데, 아빠는 다시 술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몇잔을 더 걸쳤을까. 언뜻 문가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다. 아들인 것 같았다. 아빠는 별떡 일어나 나가 보았다. 눈을 맞으며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아빠를 지켜보고 있는 아들. 머속에선 아빠는 아들을 바라보다 흰눈 쌓인 땅으로 눈길을 뻗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길에는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있었다. 뽕뽕뽕 어긋자가 난 아빠의 발자국밖에. 그럴 아들은.....? 아들은 아빠의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왔던 것이다. 뽕뽕뽕 어긋난 아빠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아빠를 따라왔던 것이다.

어디선가 들은 동화 한 토막이다. 하기사 어른들도 화가 나는 요즘, 하지만 아무리 나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세상일지라도 울곧게 나가야겠지. 그래야 내 뒤를 따라올 아이들이 잘못된 발자국을 되밟지 않을테니.

새날, 더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